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5호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일본어판 즉각 깨닫는 열쇠 제4권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의 정수를 모아 놓은 『즉각 깨닫는 열쇠』 총서는 관음 법문 수행자라면 매일 읽어야 할 필독서로 여겨져 왔다. 이번에 정식 출간된 일본어판 제4권은 일본 독자들에게 큰 이로움을 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모든 영성 서적과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심오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스승님은 지금으로부터 2천 년 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즐겁게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예견하시면서 아울러 어떻게 환경을 보존해 우리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아틀란티스와 같은 찬란했던 과거의 지구 문명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졌는지, 깨달은 스승은 높은 차원에서 내려와 어떻게 인류 문명의 고양을 돕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와 노자가 관음법문을 수행하여 깨달은 스승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 주신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260 (영어 + 28개 국어 자막)

재판 추가 언어: 아라비아어, 불가리아어, 네덜란드어, 타갈로그어, 루마니아어

이 세상 너머의 신비

1992. 6. 26. 미국 뉴욕 UN 강연

내용 요약: 스승님은 물질세계 너머에는 어떤 차원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수행을 통해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신체와 감정, 정신,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하신다. 또한 높은 차원의 깨달은 스승이 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5세기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지, 이생에서 수행자들이 성취할 등급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인구 과잉, 자연 환경 파괴, 식량 부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하신다.



604 (영어 + 중국어 자막)

수행과 직업 윤리

1997. 12. 23.-24.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내용 요약: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수행을 하며 수용하고 따라야 할 지침들을 환기시키시면서 영적 수행의 성과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이자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하신다. 물질적인 안락을 구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물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고 명상의 진보에도 큰 방해가 된다. 또한 과식하면 명상이 안정되지 않는다. 80퍼센트 정도 배부르면 충분하다. 그러면 다음 끼니 때 식사가 더욱 맛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차례

- 앞표지 안/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책/ DVD/ CD
- 2** **스승님 말씀**
스승이 되는 길-자신의 주인이 되고 완벽을 추구하라
- 3/ 42** **감로법어**
신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태도/
과학 연구와 영적인 지혜는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
- 4** **다채로운 이벤트**
카메룬/ 남아프리카/ 핀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싱가포르/
홍콩/ 포모사
- 19** **스승님의 농담**
유인책/ 불발로 끝난 매수 작전
- 20/ 37** **제일선에서**
독일/ 포모사
- 23** **시**
칭하이 무상사-사랑의 화신
- 2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행이 높아지면 복과 지혜가 두루 원만해진다
- 28** **수행의 길목에서**
만물 동일체를 배우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신의 사명과 사업을 아울러 하다
- 30** **관음 가족**
신실한 수행에 대한 보상

- 31**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엄매이지 않는 마음이 깨달은 마음
- 33** **골라 뽑은 수행문답**
진정한 스승은 시공의 이원성을 초월한다/
최상의 축복은 내적 성장에서 비롯된다/
함께 나누면 가난은 사라진다/ 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미덕
- 42** **지혜어록**
관음법문은 가장 정확한 과학
- 43** **관음사자의 여행 일지**
천상의 빛 속에서 건설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 아시아인들/ 고대 문명으로 다시 돌아온 관음법문
- 47** **신기한 감응**
가장 빛나는 성스런 의식/ 황금 길을 걷다
- 49** **양서 입문**
예수 그리스도-관음법문의 스승이자 채식 주창자
- 52** **매체 보도**
동물 해부의 감소는 인류의 자비심 확장의 증거/
고기 위주의 미국 명절 음식에 대안적인
채식 요리가 늘어나다
- 55** **사랑의 실천**
일본/ 파나마/ 포모사
- 58** **감사 편지**
- 62** **수행 일화**
청결히 하는 습관을 기르자
- 65** **관음 웹 사이트**
- 66** **전세계 연락처**
- 72/ 뒤표지 안** **무상 예술**
피안을 그리며-흘러가는 삶의 강물/
큰 깨달음을 얻으신 스승의 시

출판일자 : 2005. 5. 14.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5호



스승이 되는 길- 자신의 주인이 되고 완벽을 추구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6. 3. 13.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36

스승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자신의 실수들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매일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거지요. 마치 천재의 자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스승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승이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일 뿐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오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실

함이 내면에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스승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태어났다거나 현재 완벽하다거나, 혹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두뇌가 내게 지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는 두뇌를 아니까요. 나는 두뇌와 친구가 되어 서로 타협합니다. “너는 이것을 해, 나는 저것을 할 테니까. 서로 방해하지 말자. 네가 그것을 잘하면 상을 줄게. 난 너에게 맛있는 걸 많이 주잖아. 그렇지? 네가 원할 때면 뭐든지 줄게.” 지금은 나의



두뇌도 나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 많이 원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두뇌가 자고 싶어해도 나는 “안 돼. 일어나 일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뇌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십 년 뒤에는 두뇌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 여자에게 말해 봐야 소용없어. 아주 고집불통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니까 싸워 봤자 소용없어.”라고 여깁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더욱 훌륭하고 고귀한 인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격이 아니라 더 훌륭한 이상이라 해야 마땅하겠지요. 왜냐하면 인격이라 말하면 여전히 명리를 원한다는 것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아직 애고가 있으며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하던 그것이 고귀하고 이상이 높고 다른 이에게 이롭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면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 그저 행하고 말은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뇌수술을 받는다 해도 다른 두뇌에 비해 월등히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큐

가 약간 더 높거나 여러분의 아이큐가 조금 더 높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는 같습니다. 의지력도 같고요. 다만 여러분이 의지력을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훈련시키느냐에 달렸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해롭고 퇴행적인 방식으로 잘못 써서 높은 의식 수준으로의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우리가 왜 더 높아지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늘 어리석고 우둔하고 느리고 게으르기만 하고 소파에 기대어 TV에 빠져 사는 사람보다는 고귀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게 더 편안합니다. 나를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저 나의 본보기만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를 숭배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하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스

스로를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못 하지만 인류와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롭고 여러분의 판단력과 지혜에 도움이 되는 일을 견딜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르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스스로를 알고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고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이로움을 주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뒤돌아보고 후회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며, 오로지 고통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해야 했을 일을 하지 않아서 양심이 때리는 거지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양심이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편안하지 않으면 병이 나거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신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태도

청하이 무상사/ 2000. 5. 3. 필리핀 마닐라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91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 아낌없는 선행입니다. 복이 많고 부유하고 편안할 때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생활 중에, 또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줄 때, 신은 우리가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신의 사랑을 이 세계에 전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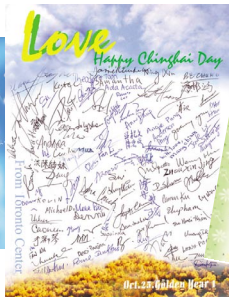
카메룬 소식

황금시대 원년 칭하이데이 경축 행사

작은 나무/ 두알라

[두알라] 카메룬 동수들은 2003년에 처음으로 칭하이데이 경축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올해에는 더 큰 자신감과 긴밀한 협조 속에 더욱 멋지게 행사를 치러 냈다. 2004년 10월 25일 오후 각지에서 모인 동수들과 손님들은 새로 단장한 카메룬 센터에 모여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했다. 참가자들은 시 낭송과 노래, 춤, 피아노 연주를 통해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시원한 저녁 바람처럼 행사장을 감싸고 있는 스승님의 사랑을 만끽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은 언제나 아낌없이 주기만 하실 뿐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으신다. 칭하이데이 또한 우리가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기회이다. 온 우주의 축복을 받는 이 장엄한 날을 맞이해 사랑하는 스승님이 건강하시고,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Happy Supreme Master Ching Hai Day

Dearest Master,

May God Almighty continue to bless Your mission of saving all sentient beings as You bring this world so carefully into the Golden Age.

We love You very much.

Disciples from the
Indiana, Kentucky, U.S.

이 순간을 영원히-칭하이데이 특집

관음법문 웹 사이트 '칭하이데이 특집'에서는 칭하이데이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전세계 동수들이 스승님께 보낸 멋진 축하 카드, 여러 센터에서 칭하이데이 경축 행사 모습을 담은 흥미로운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영적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제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껴 보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ghaiday/eng> (미국 -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pecial_report/chinghaiday (포모사 - 영어)

남아프리카 소식

스승의 힘이 갈망하는 영혼을 부른다

요하네스버그 뉴스그룹

[요하네스버그] 2004년 11월 13일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비디오 강연회를 센터에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스승님의 1999년 케이프타운 세계 종교 회의 강연 DVD를 상영했는데 청중들은 이를 매우 주의 깊게 시청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친 후에는 절반가량의 청중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스승님을 알게 된 참석자들의 사연은 매우 흥미로웠다. 한 남자는 선반 맨 위 칸에서 뭔가를 찾던 중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스승님의 견본책자가 자신에게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친구를 통해 비디오 강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연회에 참석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자랑스러운 방편법 수행자가 되었으며 입문을 위해 완전채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모녀시간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광고를 보고 스승님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강연회에 참석하고는 방편법을 수행하게 되었다. 자기 나름대로 명상을 수행하며 줄곧 수행 단체를 찾고 있었던 한 여성은 강연회에 참석한 후 입문을 신청했다. 손금을 보는 한 여성은 지난주에 있었던 영성 박람회에서 우리 부스에서 뿔어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체험한 후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난 박람회 동안



스승님의 DVD 강연을 주의 깊게 시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우리 부스에서 상영한 스승님의 DVD 강연에서 전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손금 보는 일을 세 번이나 멈춰야 했다고 설명하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알려 주곤 마침 가까이 있었던 우리 부스로 보냈다고 얘기했다.

이날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모두 스승님께 서 이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다른 길로 돌려 가지 말고 당신에게 오도록 부르신 덕분이다.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은 황금시대 원년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멋진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 스승님께 큰 감사를 드렸다.

핀란드 소식

백야의 나라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안네 나이트룸/ 헬싱키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는 여름에는 24시간 해가 비친다고 해서 ‘백야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동수들은 2004년 10월 16일부

터 17일까지 헬싱키에서 개최된 ‘영성과 지식 박람회’에 참가해 8차례의 영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측에서는 박람회 관련 잡지 2만 부를 전국에 배포했는데, 이 잡지에는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었다.

핀란드 국민을 비롯해 러시아, 에스토니아, 몇몇 아랍인 등 약 1



만 명이 행사를 참관했다. 우리는 부스 안에 스승님의 사진과 경서, DVD 등을 전시하는 한편 바깥쪽에는 내면의 빛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폭포와 램프를 전시해 수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틀 동안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4차례의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도착한 손님들은 120인치 대형 프로젝션 화면으로 상영되는 스승님의 강연에 매료되었다. 바깥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동수들은 방문객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청하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동수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행 경험에 대한 애기를 나눴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스승님의 지극히 순수한 에너지에 찬탄을 보냈다. 또한 성경의 여러 문구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거나 채식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에스토니아에서 이와 유사한 영성 박람회를 주최하는 한 여성은 우리 부스의 분위기를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동수들에게 가까운 에스토니아에 와서 세미나를 개최해 주겠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세미나 때마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한 후 관음법문과 입문에

대한 동수의 간략한 설명에 이어 관심이 있어서 남은 참가자들에게 방법법을 배우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다들 명상에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었다.

이틀간의 세미나를 통틀어 약 백 명이 방법법을 전수받고 더욱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런 다채로운 행사 기간 동안 스승님의 가피력은 특별히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이들이 천국과 같은 신성하고 순수한 진동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

벨기에 소식

특별한 장소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다

류 김 후엔/ 겐트

[메헬렌] 2004년 11월 21일 일요일, 벨기에 동수들은 벨기에 브뤼셀 근처 메헬렌의 한 서점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서점 입구에 스승님의 잡지와 사진을 전시해 손님들을 맞이했다.

먼저 스승님의 1999년 세계 종교 회의 때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했고, 이후 서점 주인을 포함한 몇몇 참석자들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다. 새로운 방법법 수행자들은 동수들과 30분 동안 함께 명상을 한 후에 자발적으로 스승님의 잡지와

견본책자를 요청했고 채식 요리 교실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메헬렌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동수들은 스승의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즐거운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고대했다.



뉴질랜드 소식

홍법 활동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일들

루스 스탠나드/셀슨

[크라이스트처치] 2004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넬슨과 크라이스트 처치 동수들은 뉴질랜드 남쪽 섬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심신과 영혼의 축제’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었다.

축제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위한 스승님의 최상의 안배를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0월 8일에는 부스가 너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큰 부스를 예약한 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는 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뉴스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긴 했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놀라웠다!

축제 첫째 날, 다시 한 번 스승의 힘의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로 몰려들었다. 한 젊은이는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발산되는 느낌을 받고는 저절로 오게 됐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옆 부스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우리와 이웃하게 되어 너무 좋으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와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 또 매우 신실한 한 청년은 동수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강하게 연결돼 있는 오랜 친구라고 느끼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수년 동안 호흡 수련을 한 그는 관음법문 수행이 자신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되리란 걸 확신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센터 연락처를 물어봤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린이의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여덟 살 난 소녀는 견본책자를 받기 위해 자기 혼자 우리 부스로 돌아오기도 했다. 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아장아장 걸어가던 많은 아기들은 부스 벽에 걸린 스승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중 두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기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아버지는 완전히 잊은 채 부스로 와서 TV 화면에 나오는 스승님의 모

습을 만지려 했다.

이번 행사 기간은 동수들과 방문자 모두에게 매우 고양된 시간이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방문객들이 작은 보물인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 ‘2004 심신과 영혼의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월요일에 넬슨 센터로 돌아왔다. 또 다음날 명상하는 동안에도 강렬한 축복이 느껴졌다. 동수들은 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모든 이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호주 소식

모두 함께 고양된 강연회

마제네스타 & 존티/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2004년 11월 28일 일요일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의 동수들은 뉴사우스웨일즈의 머월룸바에 있는 아름다운 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브리즈번과 포모사 동수들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 준비는 매우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강연회 당일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40km 떨어진 골드코스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비디오 강연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후 수준 높은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또 강연장에 흐르는 흥분된 느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주에

방편법을 배우러 센터를 방문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기운을 강하게 느껴 입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나중에 머월룸바 강연회를 준비했던 동수들은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동수들과 손님들 모두 강연장에 가득한 스승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고양되었으며 형제애와 동일체의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캐나다 퀘벡 소식

**감로수가
고대 성인의 땅을 적시다**

반 응우옌 & 엘라 퍼트/ 몬트리올

[몬트리올] 2004년 청하이데이를 경축하는 의미로 몬트리올 동수들은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퀘벡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오랫동안 살아 있는 성인들의 축복을 받은 땅으로 알려져 있는 퀘벡의 거리와 공공 기념비 등의 이름에는 이들 성인들의 표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강연회 일주일 전부터 활발하게 전단지 배포하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낸 동수들의 활동 덕분에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강연회 당일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생화로 아름답게 장식한 센터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시종일관 강연장에는 즐겁고 행복하며 고양된 기운이 충만했다.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서 이미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질문이 거의 없었다. 이후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한 스페인 남성은 1993년 봄 스승님의 몬트리올 대학 강연으로 스승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신문 광고를 보고 다시 몬트리올 센터와 연



락이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방편법을 배우기로 했다. 또 이번에는 새로 방편법을 수행하게 된 한 열렬한 태극권 수행자는 전에 태극권을 하는 동안 비전을 통해 천사를 본 체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관음법문 수행을 하면 매일 이런 체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로움을 얻음으로써 삶이 더욱 평온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명상법을 찾아 헤매던 그의 구도 여정

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게 됨으로써 끝을 맺었다.

이번 몬트리올 비디오 강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과 이로움을 얻는 모습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였다. 이번 행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퀘벡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체험을 통해 모두를 이롭게 한 멋진 기회였다. 몬트리올 동수들은 이웃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멕시코 소식

스승님의 신성한 안내로 수많은 영혼이 고향을 향한 여정에 오르다

M. O. 라미레즈 & G. S. 니에토/ 깨레따로

[깨레따로] 멕시코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깨레따로는 멕시코의 가장 오래된 식민 도시의 하나로 고색 창연한 건축물과 정원들로 꾸며져 있다. 신을 알리고 하는 많은 깨레따로 주민들의 열망을 느낀 깨레따로 동수들은 2004년 11월 13일 토요일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영원한 해탈 법문을 주민들에게 선사했다.

멕시코의 다른 도시에서 온 동수들이 강연회 며칠 전부터 도착해 깨레따로 동수들과 함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동수들은 많은 포스터를 붙이고 무수히 많은 전단지를 배포했다. 지역 신문과 방송사에서도 이번 행사 소식을 전하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의 이로움에 관해 한 사형과 인터뷰를 했는데, 청취자들은 관음법문이 무료로 전수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고향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스승님의 크나큰 자비 덕분에 모든 행사 준비는 그때마다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 사제가 전단지를 나누어 주다가 만난 남성은 예전에 미국 채식 식당에서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

었지만 당시에는 아시아권 견본책자만 있어서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견본책자를 구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와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사저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스페인어판 견본책자를 구할 수 있었다.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책자를 받은 그는 고국에서 관음법문에 대한 갈망을 이루게 된 것에 크게 기뻐했다.

강연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도착해 앞자리에 앉았으며 좌석이 순식간에 꽉 차서 우리는 의자를 더 많이 갖다 놓아야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자리는 계속 부족하기만 했다. 다행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신실한 열망에 불타 불편함도 잊은 채 통로에 앉거나 계속 서서 비디오를 시



깨레따로 강연장을 가득 메운 구도자들. 일부는 통로에 앉아서 스승님의 강연 DVD를 열심히 보고 있다.



청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강연장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쳐흐렸으며, 참석자들은 영성에 관해서 심도 깊은 많은 질문을 했다. 한 참석자가 스승님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에 대해 질문하자 생각지도 않게 일부 참석자들이 스승님은 외면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영적인 수행과 내적 깨달음을 조화롭게 갖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이시는 것이라며 이런 아름다운 스승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얘기했다. 이런 통찰력이 뛰어난 말들을 통해 청중들이 스승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빠르게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 후 참석자의 2/3가량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동안 내적 체험을 경험했다. 사람들은 내면의

빛이나 과거의 스승들을 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의 화신을 보기도 하면서 스승님의 위대한 힘과 관음법문에 대해 확신을 얻었다.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희망이 넘치는 밝은 얼굴로 어서 센터가 만들어져 스승님의 인도 속에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소식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충주 무술 축제

서울 뉴스그룹



[충주] 충청북도에 위치한 충주는 한국 최대의 인공호인 충주호의 수려한 경관과 맛있는 사과와 산지로 유명한 고장이자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고장이기도 하다.

충주시에서 매년 주최하는 충주 세계 무술 축제가 올해로 제7회째를 맞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4개국 60개 무술 단체가 참여했으며 9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참관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해 웰빙 체험 코너의 채식 체험, 명상 체험, 대체의학 체험 등 세 부스를 운영했다. 우리 부스는 행사에 참가한 모든 부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부스 중 하나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영동, 서울, 대전을 비롯한 각 센터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했다. 채식 체험 부스는 대전 센터에서, 명상 부스는 서울 센터에서 맡았으며, 대체의학 부스에서는 두 명의 서울 사제들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의학 상담을 해주었다. 그리고 영동 장주들이 행사 전반에 걸쳐 협조를 해주었다.

명상 부스에서는 대형 텔레비전으로 하루 종일 스승님의 비디오를 상영해 모든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가피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승

님의 예술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신성하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비디오를 시청하는 관람객에게 무료로 차와 커피를 대접하기 위한 티 테이블도 마련했다.

채식 부스는 건강 웰빙 코너의 성격을 살려 채식 무료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채식 도시락을 만들어 싸게 판매했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명상 부스는 전세계의 요가인과 무술인, 일반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스의 공간적 제약 때문에 현장에서 방편법 전수를 하기는 어려웠으나 방편법을 빨리 전수받고 싶어하는 신청자들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다른 장소에서

방편법 전수가 이루어졌다. 방편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안배에 굉장히 흡족해했다. 행사 기간 중 수십 명이 방편법을 신청했으며, 방편법을 배운 후 바로 입문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옆 부스의 요가 단장은 한 영동 장주와 두 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눈 끝에 입문을 신청했으며, 대전의 합기도장 관장 또한 오랫동안 단련해 온 육체적 수행의 한계를 초월한 영적인 수행에 대해 강한 흥미를 느껴 입문을 신청했다.

평생 요가, 참선 등 많은 수행법을 배워 왔지만 보다 초월적인 세계를 찾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한 미국인 교수는 우리 법문이 궁극적인 법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곤 견본책자를 받아 갔다. 며칠 후 그는 방편법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해 왔다!

행사가 끝날 무렵 충주시 관료들은 우리 동수들을 방문해 우리의 세 부스가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행사

에도 다시 참가해 달라고 초청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부스가 대성공이라며 치하하고 충주 무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한 데 큰 감사를 표했다.

2004 충주 무술 축제는 충북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관음법문과 채식의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행사 기간 중 전국에서 모인 동수들은 황금시대의 새로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조화로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참된 행복의 근원, 신의 복음 나누기

부산 뉴스그룹

[부산] 2004년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부산시청에서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비롯해 약 12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 NGO 대회가 열렸다. 부산 센터 동수들이 차린 우리 협회 부스는 특히 입구 가까이에 위치하여 행사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눈에 먼저 들어왔으며, 스승님의 강연회 영상물을 끊임없이 상영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과 동수들의 불임성 있는 태도에 끌려 우리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초 동수들은 행사장의 잔디밭 위에 천막을 치고 TV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DVD를 상영하려고 했었는데 행사장 관리자가 자리를 옮기라고 했다. 그때 큰 영사막이 있는 천막식 극장이 생각나 우리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여기엔 긴 벤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행사장의 소란한 바깥 상황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앉아 장시간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할 수 있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이 놀라운 안배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스승님의 강연 DVD를 시청한 몇몇 방문객들은 동수들에게 수행에 관

한 질문을 하고 스승님의 멋진 출판물과 채식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을 비롯해 함께한 여러 민간 단체 사람들도 우리 부스를 방문하여 관심을 보였고, 시청 내의 공무원들도 시간을 내서 방문하여 스승님의 가르침과 채식주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부산 동수들은 진정한 깨달음과 삶의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심을 다해 봉사했다. 한 사저는 깨달음과 홍법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이 길을 따라 수행하면서 마음 깊이 많은 이로움을 느꼈지요.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족과 직장에 대한 의무도 다하면서 스승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많은



동수들이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거의 모든 흥법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행복과 수행 성장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올해 부산 NGO 대회에 참여했던 동수들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모두 부산 센터에 모여 단체명상을 한 후 기쁜 마음으로 11번째 칭하이데이를 경축했다.

예술적 영감이 넘치는 시화전으로 칭하이데이를 기념하다

서울 뉴스그룹

[서울] 칭하이데이 하루 전날인 10월 24일 일요일, 서울 센터는 최근 실내외를 아름답게 새로 단장한 SM 채식 뷔페에서 ‘깊어가는 가을, 깊어가는 수행, 깊어가는 예술적 재능’이라는 주제 하에 제4회 시화전을 개최했다. 수행을 통해 발전된 예술적 재능으로 천상의 예술을 창조하고 그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모범에 영감을 받은 동수들은 시, 그림, 조각, 사진, 요리, 공예 등 다양한 예술품을 선보였다.

이렇게 해서 사형, 사저, 가족, 친구, 그리고 영동 장주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복으로 가득 찬 이 예술 행사를 즐겼다.

모두들 아름답게 차려입은 터라 단체 사진을 찍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동수들은 ‘해피 칭하이데이’라고 써어진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나중에 스승님께 축하

하 카드로 보냈다.

전시회에는 스승님의 그림과 시, 만화도 전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참석자들이 스승님과 그 창조적 재능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 공연에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음식 축제와 등반 대회로 기운을 충전하다

서울 뉴스그룹

[영동] 2004년 11월 7일, 상주 센터에서는 전국에서 250여 명의 동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 축제와 등반 대회가 열렸다.

명상 시간을 조정해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명상한 후 동수들이 준비해 온 최고의 음식으로 '음식 축제'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25만 평 정도 되는 센터의 경계를 따라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행에 나섰다. 대부분의 동수들은 센터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올라가기가 매우 힘든 탓에 1998년에 영동 센터가 생긴 이래 센터를 둘러본 경험이 없다. 산행에 나선 동수들은 가파른 경사에서 서로 손을 잡아 주고 부축해주면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한편 날로 아름다워지고 있는 센터의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2004년 11월 영동 센터 등반 대회에서 서로 도우며 산을 오른 한국 동수들.

2004년 11월 음식 축제 및 등반 대회를 통해 한국 동수들은 지상 천국을 눈앞에 선사해 주시고 아울러 수행과 육체적 건강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특별하고도 즐거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싱가포르 소식

생기 넘치고 성과가 풍부했던 비디오 강연회

시투 와이 쿡/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4년 10월 24일 일요일, 싱가포르 동수들은 친구들과 일반 대중을 초대해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가 시작되자마자 강연장에 마련된 200여 석이 꽉 채워졌다. 이날 상영된 DVD는 스승님의 1999년 유럽 순회강연 중 런던에서 강연하신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였는데 참석자들은 청중들의 예리한 질문에 깨달음이 풍부한 답변을 하시는 스승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후 30여 명이 방편법을 배웠으며, 방편법을 배운 모든 이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영문·중문으로 된 잡지 CD를 받았다. 신의 은총 속에 이 흥법 행사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입문자와 참석자들 모두 흡족해했다.





홍콩 소식

영성을 고양시키는 방법 나누기

[홍콩] 2004년 10월 홍콩 동수들은 샤틴 시청에서 '심신과 영혼의 고양'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여 많은 청중들의 발길을 모았다. 동수들은 홍콩 전역 19개 지역에 전단지 2만 장을 배포하고 200여 장의 안내 포스터를 붙이며 행사를 널리 알렸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전쟁을 종식시키는 법'이 상영되기 시작하자 행사장에는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멋진 강연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불교와 명상, 해탈에 관련된 심오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중에 남아서 방편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전에 다른 수행을 했었거나 이



미 채식을 하면서 종교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방편법 수행을 통해 각자의 심신과 영혼을 좀더 정화하고 고양시키고 싶다고 얘기했다.

스승님의 축복과, 각자의 재능을 발휘한 홍콩 동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에 이번 비디오 강연회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신과 영혼의 고양과 깨달음을 경험케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포모사 소식

가오슝 센터 개관

가오슝 뉴스그룹

[가오슝] 포모사 남부 항구 도시인 가오슝에 사는 동수들은 시내 가까운 곳에 단체명상 장소가 마련되기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그래서 이전 센터의 임대 기간이 끝나 갈 무렵 동수들은 신심을 내어 따로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를 구입할 기금이 재빨리 걷어지자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스승님의 축복 속에 2004년 10월 24일 황금시대 원년 칭하이데이 전야에 '황금 홀'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오슝 동수들의 오랜 바람이 마침내 실현되게 되었다!

토지 매입에서 땅고르기 작업, 최종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동수들은 8개월 동안 실새없이 열심히 일했다.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동수들이 함께 일한 결과 버려진 땅덩이가 아름다운 수행 천국으로 탈바꿈했다. 공사 기간 동안 동수들은 서로 협동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며 책임감과 희생 정신을 익히게 되어 정말 풍부한 영적 수확을 거



두었다.

스승님의 아낌없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가오슝

동수들은 공사에 박차를 가해 청하이데이 전야에 일을 마쳐 ‘황금 홀’ 개관식과 함께 청하이데이 경축 행사를 함께 치를 수 있었다. 포모사 전역에서 온 동수들과 시후 장주들의 축하 속에 멋진 공연이 펼쳐졌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백여 가지의 음식이 선보인 성찬이 이어졌다. 식사 부스마다 군침 도는 요리들을 맛보기 위해 2천여 명의 동수들과 손님들이 길게 늘어섰다. 또한 가오슝 센터는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출판물도 전시하여 영성의 양식도 제공했다. 또 다른 좋은 소식 하나는 이날 20여 명의 손님들이 방편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파티가 끝난 후 동수들은 다 함께 두 시간 동안 명상한 후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전된 가운데 경축 행사를 마쳤다. 가오슝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소중히 여기며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가오슝 센터는 모든 동수들에게 속한 수행 사원이며, 전세계 동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황금시대 원년에 빛나는 합동 경축 행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황금시대 원년 10월 24일, 타이베이 동수들은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에 모여 친지와 친구 및 손님들과 함께 청하이데이와 센터의 개관 일주년 기념일을 경축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작업 팀 소속의 동수들이 멋진 공연을 준비해 선보였다. 공연 중간 중간에 상이 걸린 퀴즈와 노래 자랑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참가자들의 마음에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 주었다. 시후에서 두 달 전에 입문한 한 어울락 사저는 이날 처음으로 어울락 전통 의상을 입고 스승님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게 된 것에 기분이 무척 들떠 있었다. 사저는 포모사에 와서 순조롭게 입문하도록 해주시고 입문 후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에서 매일 단체명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생활 미화 팀 소속의 리우 사형은 전통 아랍 의상을 입고 아라비안 춤을 공연했는데, 그는 “스승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보

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근기를 키우고 무아의 희생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모두 함께 포모사의 대중 가요인 ‘감사의 마음’을 합창하는 가운데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에서의 뜻깊은 청하이데이 및 개관 일주년 기념 행사는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스승님께서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위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자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황금시대 원년 11월 20일, 포모사 타이완 국립 대학의 광음회 소속 동수들은 타이완 대학 개교 기념 행사 기간 동안 포모사 북부 지구에 있는 타 대학의 동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캠퍼스 홍보 활동을 개최했다. 동수들은 '만물 평등,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개구리 해부와 가상 동물 약품 실험 등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도 생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현장에 모인 수많은 젊은 학생 중 한 수의학과 학생은 "생명 존중의 이념은 학과 수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

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류가 밝아오는 황금시대를 맞아 '만물 동일체'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영혼의 오찬을 함께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2004년 11월 19일부터 12월 31까지 타이베이 장개석 기념관에서는 포모사의 제2회 원주민 목공예 전시회가 열렸다. 올해 행사는 '산하(山河) 조각'이 주제였다. 2000년의 제1회 전시회와 2003년 전통 혼례 전시회 당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는 행사 주최측에 시기 적절한 지원과 관심, 격려를 보낸 바 있다. 올해에도 우리 협회는 다시 한 번 초대를 받아 원주민 목공예 전시회에 참석해 보다 깊은 교류를 나누었다. 또한 포모사 원주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달하고 원주민 예술가들이 스승님의 예술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이베이 센터는 11월 23일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에서 '심신과 영혼의 오찬'을 열어 예술을 통한 우정을 다졌다.

이번 오찬에는 원주민 예술가들, 여러 부족의 전통 가수들 외에 타이둥 현의 도우란 카발란 족의 족장인 천정루이(애칭: 이슈이), 중화 타이베이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지아웨이지에 위원장, 국제 평화 및 항마약협회의 종루희 이사, 다문화 예술단의 리더웨이 간사, '산하 조각전'의 주최자인 앨리스 타끼와탄 여사, 문화 예술 잡지 『기원』의 린즈왕 편집장, 사스



희생자를 돌보다 사망한 영예로운 간호사 천징치우 씨의 남편 탕스후 선생 등의 귀빈들이 참석했다. 예



국제협회 측에 아름다운 원주민 수공예품을 선물하는 타이중 도우란 카발란 부족의 족장인 천정루이 씨. (왼쪽에서 두 번째)

술가 친구들은 우리 측에 아름다운 토속 공예품을 선물했고 우리는 답례로 가오슝 현 마오린 현립 도서관에 스승님의 그림 '천당화'와 '법희 충만', 그리고 『죽각 깨닫는 열쇠』 총서를 선물했는데, 조각가 천완티 장로가 도서관을 대신해 선물을 받았다. 귀빈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식사를

즐겼을 뿐 아니라 스승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비디오와 스승님의 예술 작품도 함께 감상했다. 참석자들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자 박애주의자, 예술가의 역할을 모두 다 해내시는 스승님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오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예술 창작에 집중할 때 내면의 경지로 들

어가며 그 효과가 명상과 비슷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참석자들과 예술가들이 채식하고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심하면서 이번 '심신과 영혼의 오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원주민 예술가 친구들과 귀빈들이 방편법을 배우다.

스승님의 사랑의 바다에 잠긴

2004 타이중 전국 도서 박람회

타이중 뉴스그룹



[타이중] 타이중 센터 동수들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타이중 국제 무역 센터에서 열린 '2004 타이중 전국 도서 박람회'에 '삶을 다채롭게, 신을 믿고 신과 접촉하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중부 포모사의 이 문화 행사에는 100여 곳의 출판사에서 참가했는데, 동수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행사를 개최해 많은 독서가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우리 관음 부스는 양쪽 입구를 특별한 모습으로 장식하고 손님들이 스승님의 출판물을 편안하게 읽거나 스승님의 천상의 음악을 조용히 감상할 수도 있는 아늑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서전 첫날과 마지막 날에 마련한 흥법 행사에서는 아나운서의 정확하고 적절한 소개와 더불어 멋진 천의를 입은 아름다운 모델들이 스승님의 영성 도서를 선보였다. 이 행사는 많은 참가객들로 붐비 큰 호응을 받았으며, 우리 부스는 쇼가 끝나기도 전에 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외 우리는 '모기 누나가 해주는 이야기'와 상품이 걸린 퀴즈, 스승님의 창작 음악 연주, 요리책 『무상 주

방』에 나오는 요리 시연, 지역 명사들이 스승님의 책을 소개하는 세미나 등 다채로운 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출판물을 소개했다.

국립 타이중 청각 장애인 학교의 교장, 교사 및 학생들, 타이완 아동 가정 재단의 어린이들, 청년 고등학교의 광고 디자인과 교사와 학생들도 우리 부스를 참관해 열렬



한 성원을 보냈다. 그 중 홍명차
이 청각 장애인 학교 교장은 십 년
전에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읽
은 후 청하이 무상사에 대해 깊은 감탄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고 하면
서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 좀더 많이 공부해 자신의 영성을 계발해 보겠
다고 다짐했다. 또한 명상의 이로움에 대해서 홍 교장은 다음과 같이 높
이 평가했다. “예전에 학생들을 교육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명상
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우리 학교는 명상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모든 학생들

이 명상을 통해 ‘자신’을 좀더 분
명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
다.” 이 학교의 90여 명의 교사와 학
생들은 11월 2일 『신은 모든 것을 돌
보신다』 퀴즈 행사에도 참여해 많은
상을 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
다.

2004 타이중 전국 도서 박람회
가 막을 내리기 1시간 전, 다른 출
판사들은 마지막으로 출판물을 홍보
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 이번 행사
에 참여한 모든 동수들은 가만히
앉아 명상하면서 신의 도구가 되어
일하고 영적으로 배울 기회를 안배
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명
상하는 동안 스승님의 사랑이 온
행사장에 가득 퍼져 나갔으며 많은
동수들이 내면의 환희로 감동의 눈
물을 흘렸다.

이번 도서 박람회의 주요 행사 장면은 Sun TV ‘예술과 영성’ 제119집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청 URL: <http://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 국립 타이중 청각 장애인 학교의 홍명차이 교장(왼쪽)이 개막식에 참석해 책을 선물로 받고 있다.

유인책

청하이 무상사/ 1999. 10.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한

경찰이 나이트클럽 밖에서 취객들이 나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을 무렵 마침내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비틀거리며 뭐라고 중얼중얼하다가 한 번씩 고함도 치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차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계속 이 차, 저 차로 가서 열려고 해봤지만 어느 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이트클럽에 있던 손님들은 나와서 각자 자기 차를 찾아 타고 가 버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자 비틀거리던 그 남자는 갑자기 정상적인 걸음으로 자기 차를 찾아가더니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즉시 따라가 말했습니다. “귀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음주 운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이 기계에 숨을 불어 주세요.”

그런데 이 남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죠. “아니, 좀 전까지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안 취했어요. 그냥 당신의 주의를 뺏느라 그런 시늉을 한 거죠. 다른 손님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요.”



불발로 끝난 매수 작전

청하이 무상사/ 1999. 10.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시

험이 끝난 후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걷다가 한 시험지 안에 작은 쪽지와 함께 100달러가 끼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쪽에는 “1점당 1달러”라고 써 있었어요. 채점을 마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지를 나눠 줬습니다. 선생님을 매수하려던 학생은 시험지와 함께 64달러를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이었던 거죠!





아름다운 미래의 조짐

-스승님의 빛이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를 찬란히 비추다

독일 뉴스그룹 (원문 독일어)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는 15세기에 기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 전시회이다. 2004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올해 행사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1만여 출판사, 작가, 예술가, 지식인과 17개 아랍 연맹국의 고위 인사들도 참여하는 등 박람회 역사상 가장 특별했던 행사가 되었다. '아랍 세계-미래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박람회의 문화 교류는 희망의 서광과 인류가 사랑과 이해 속에 조화로운 합일을 이루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의 조짐을 내비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대중에게 귀중한 관음법문의 빛을 전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수행을 하고 신을 깨닫는 무한한 축복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했다. 동수들은 독일과 아랍국, 기타 많은 국가의 명사들과 정치 인사들이 참석한 문화적·정치적·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이번 행사에 한 일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동수들은 이번 박람회를 위해 독일어판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재판과 더불어 몇 개의 DVD에 독일어 자막을 새로 추가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마쳤으며, 아랍어판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와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구하고 몇몇 DVD와 VCD에 아랍어를 추가하는 한편 스승님의 시도 몇 수 아랍어로 번역했다.

아랍 연맹의 사무총장이자 저명한 연사인 아무르 무사 씨는 개막식 연설에서 2004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가 동서간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희망하면서 문화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긴 해도 결국 ‘하나인 전체’임을 얘기했다. 이어서 그는 “동양의 이슬람교나 서양의 기독교나 사실상 하나의 같은 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을 이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폭력과 인종 차별이 줄어들길 바라고, 우리 모두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벽을 무너뜨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의 정원을 잘 가꾸어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들자고 열렬히 호소했다. 그의 연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아랍권의 일부 청중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고자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포모사, 프랑스, 독일, 헝가리에서 온 동수들은 서로 힘을 모았으며, 유럽에 살고 있는 모로코, 파키스탄, 수단 출신의 이슬람 동수 세 명이 프랑크푸르트로 건너와서 아랍어권 손님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업 팀 동수들은 전에 서로 만난 적도 없었고 또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도 없었지만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합심해서 열심히 일했다.

우리 부스는 이슬람교, 힌두교, 수피교, 불교, 기독교 및 기타 종교 단체 등 독일과 각국의 다양한 종교 출판사들이 자리한 ‘종교 영성’ 구역에 위치했다. 매우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이 구역에서 우리는 방문객 및 이웃 부스의 출판사들과 간식을 나눠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우리 부스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지속적으로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이국 여인의 강연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해 문의도 하고 관음법문에 관한 자료와 출판물을 구해 가기도 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이슬람 동수들은 이슬람 문학을 발행하는 한 출판사의 대표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관음 수행과, 관음법문이 이슬람교와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동수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 무슬림도 우리 부스를 며칠 동안 찾아오며 이런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 무슬림 친구는 처음에는 이 ‘낯선’ 법문을 피하려는 듯했으나 동수들이 관음법문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알라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하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말한 파키스탄 남성은 관음법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한 후 다음날 만면에 미소를 띠 채 우리 부스를 다시 찾



아와 말했다. “어젯밤에 자료들을 다 읽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아랍권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전단지 배포를 담당한 동수들은 아랍 전시관을 찾아가 그곳의 방문객들에게도 아랍어로 된 전단지와 견본책자, 기타 자료를 나눠 주었다. 아랍 전시관에서는 3천 권이 넘는 아랍 세계 서적과 아랍 작가와 시인들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고 여러 문화 행사도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아랍어권 방문객들은 자료를 받고는 좋아했으며 특히나 스승님의 아름다운 견본책자를 더욱 좋아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신에 대한 갈망이 신실하고 이슬람교의 성서인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매우 헌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산다. 이들의 이런 높은 도덕 수준과 헌신적인 정신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아랍 전시관에서 보여 준 춤 공연과 아랍 문학의 탁월한 심미안, 비범한 예술 재능은 우리의 경탄을 자아냈다. 사형사저들은 아랍어 자료 약 500세트를 배포하면서 이 최초의 빛의 씨앗이 어서 싹트기를 기원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각국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를 찾았다. 그 중 한



영어권 남성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 부스를 찾고 있었어요!”라고 소리치고는 관음법문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부탁했다. 우리 부스를 방문한 몇몇 중국인 중 한 베를린 시민은 1993년 스승님의 베를린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또 온 가족을 데리고 부스를 방문한 한 중국 남성은 박람회 마지막 날에 다시 찾아와 스승님의 책과 DVD를 다량 구입해 갔다.

이번 행사에서 스승님의 법문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 남자는 “박람회에서 전시한 내용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소개하는 이 모든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훌륭하군요!”라고 평하기도 했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우리에게 전시가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빌어 주기도 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 동수들은 주말에 세 번의 영성 세미나를 준비했다. 그 중 두 번은 ‘신을 보라,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얻으라’라는 주제로 독일어로 진행됐고, 다른 한 번은 ‘신을 체험하라’는 주제로 영어로 진행되었다. 강연회마다 먼저 스승님의 비디오를 상영한 후 방법법을 전수했다. 강연회에는 무슬림을 비롯한 각국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강연 후에는 약 1/4가량이 남아 방법법을 배웠다.

아울러 동수들은 ‘평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주제의 홍보 포럼을 박람회 아시아 구역에 인접한 한 국제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비파 연주로 개막된 후 우리 협회와 출판사 소개, 스승님의 수행 시 낭독, 비파와 일현금 합주 등이 이어졌고 이후 스승님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하는 DVD와 스승님의 강연 DVD가 상영되었는데, 이 강연에는 평화의 본질과 어떻게 명상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비파가 연주되면서 강연회는 막을 내렸다. 경쾌하면서도 평화로운 악기 소리에 많은 아시아 출판 관계자들과 이웃 부스의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으며, 이 중 몇몇 사람은 나중에 우리 부스로 찾아와 견본책자와 자료를 얻어 갔다.

박람회 전후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신기한 감응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다. 일례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10월 9일 토요일에는 동수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갑자기 한 중국 동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 자발적으로 견본책자와 전단지, 카탈로그 배포를 열심히 도와주었다. 동수의 어린 딸은 특히나 열성적이어서 나눠 줄 전단지를 계속해서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고 아버지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쉬려 하지 않았다.

2004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가 10월 10일 일요일 오후에 막을 내리자 동수들은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환희에 넘치고 기분이 고양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작은 파티를 열어 자축하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역 센터로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동수들은 이 아름다운 미래 세계에 적게나마 기여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가까운 미래에 서로 다른 국가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평화와 조화 속에 살게 될 것이라 믿었다. 동수들은 서로가 하나인 듯 박람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 꿈이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칭하이 무상사

-사랑의 화신

에비 입문자 풍풍 크리스토퍼/ 카메룬 두알라
(원문 영어)

아, 스승님!

당신을 처음 뵈는 것은 꿈속이었습니다.

꿈에선 묘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그것은 달랐습니다.

그냥 꿈이 아닌 그 이상이었지요.

하루하루 당신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은 힘찬 기운입니다.

그 빛으로 가득한 기운이라니!

술 취한 뭉툭함에서

연기로 가득한 어둠에서

빨리 깨어나니

온 집안 가득 빛입니다!

예전엔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개 숙여 예를 올립니다.

이 순간 지금도

당신의 사랑 고요히 전하시느군요.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단순하고 인자한...

아, 스승님!

당신을 처음 뵈는 것은 꿈속이었습니다.

아니, 이젠 그것이 꿈이 아님을 압니다.

저의 잠 깨우러

제게 불을 붙이러 오셨던 겁니다.

저의 참 고향 알리러

제가 신의 왕국의 일부임을 알리러

당신이 오신 겁니다.

아, 스승님!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카메룬 센터의 황금시대 원년 칭하이데이 경축 행사에서



청하이 무상사/ 1991. 7. 21.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183



수행이 높아지면 복과 지혜가 두루 원만해진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조화(造化)’가 모든 것을 사전에 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과 하나일 때, 만물과 동일체가 될 때 ‘나’라는 개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신의 안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안배라면 왜 신은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도록 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이것인데 왜 저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주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백과 흑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어디로 뻗느냐에 따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인이라고 해도 그 신체 구조는 못생긴 사람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발을 잡아 봐도 일반 사람의 발처럼 생겼지 손이나 입처럼 생기지는 않았을 겁

니다. 우리가 그녀의 입을 보려고 하거나 그 입술에 키스하고 싶다면 좀더 위쪽으로 향해야 하지만 그녀의 발에 키스하고 싶다면 아래쪽으로 구부려야 합니다. 물론 미인의 발은 못생긴 사람의 발보다 좀더 예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들 발은 발일 뿐입니다.

수행이 높아지면 더 큰 복이 따른다

우리 수행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행으로 조금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때는 원하는 것들도 다 뛰어나고 실제로 얻어지는 것들도 고등할 것입니다. 그냥 어찌다 생긴 것이라도 아주 훌륭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수행이 아직 높지 않을 때에는 아주 조심하고 힘들어서 좋은 것을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끔찍한 것들만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아껴도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고 싶어도 가질 수 없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아주 멋진 그릇을 갖추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부유한 사람은 찬장을 열고 눈을 감은 채 아무거나 꺼내도 아주 좋은 컵이나 그릇을 쥐게 됩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게 모두 좋기 때문이지요. 그는 안 좋은 것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꺼내려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는 좋은 것이 애당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앓을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좋은 것을 얻고자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이런저런 온갖 것을 갖고자 기도하지만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난한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귀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집에 하나쯤은 값비싼 물건이나 물려받은 골동품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한두 개일 뿐 온 집안에 값비싼 물건으로 가득할 리가 없습니다. 집의 모든 것이 보물이라면 가난한 집이 아닐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기도를 하고 나서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행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한 삶을 살며 모든 면에서 좋고 항상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수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고귀하고 고등한 것들을 갖게 되지요.

수행의 힘은 전문적인 기술을 능가한다

세속의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해도 거친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



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세속적인 번뇌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높은 차원으로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인 발상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반면 우리 수행자들은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도 마음만 먹으면 더 잘 해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혜능은 비록 학식도 없고 경전도 읽은 적이 없었지만 무슨 경전이든 읽어 주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온갖 경전을 읽고 외우기까지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내가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어떤 사형이 “스승님의 연주는 ‘현대파’로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슨 ‘파’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깊이 배운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독일에 살았을 때는 장식용으로 피아노를 한 대 샀는데, 나중에 악보를 한 권 구해서 대충 훑어보고는 “딩! 덩!...” 하고 며칠 치고는 끝냈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은 이런 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웠던 것과 똑같지요.

나중에 그 사형이 물었습니다. “노래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것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공식’에 묶이게 되지요. 예를 들면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가나 배색은 어떻게 해야 한다가나 등등. 그러한 공식을 이해하느라 시간을 보내지만 몇 주가 지나도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사리 그림이 완성되면 다시 또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팔릴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따지니 결국 영감이 모두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수행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요구하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오직 자연스럽게 일할 때라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찬탄을 얻기 위해 자랑삼아 의도적으로 한다면 수행이 어떻든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수행이 아직 훌륭하지 않기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순전히 그림을 그리고 싶은 내면의 강한 충동 때문이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라면 저절로 아주 빠르고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주 쉽게 그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매우 숙련돼서 그림을 아주 빨리 그릴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일에 매우 익숙해지면 일을 빨리 해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조화의 안배이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세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에 있어서나 예술 방면에 있어서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어떤 기계를 발명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수행을 해서 두뇌가 좀더 잘 알고 영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등급이 좀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이곳에서 표현하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수행이 부족하고 지혜가 좀 부족하다면 정확하게 받아쓰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결과물은 높은 차원의 것만큼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진선미

우리 지구는 우주의 행성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다소 낙후된 곳입니다. 좀더 뒤떨어진 별인 셈이지요. 이곳의 사물은 모두 좀 조잡하고 불완전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다른 보석들과 같은 보석들을 예로 들자면, 겉보기엔 반짝이며 모든 여성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높은 세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거칠고 단단하지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고 가장 견고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잘릴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부서지거나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높은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보석들은 그처럼 영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빛을 발산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되 우리를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단단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거지요. 또 부드러우면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국수 면발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진동이 매우 미세해서 그들의 존재가 다른 사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른 사물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 해도 차단을 하지요. 만약 우리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도로 한가운데에 둔다면 차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다이아몬드가 투명해 보이고 가장 귀한 보석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차원의 것은 다릅니다. 그곳의 사물들은 오로지 진선미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형태로써 다른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경계가 없이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의 경계는 아주 편안하게 보이며, 사용하고 싶은 대로 바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차원에서는 다이아몬드조차 많은 번거로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 몸에 지니려면 수많은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많은 도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세계의 사물들은 모두 중생을 돕기 위한 것이며, 중생을 방해한다거나 그 사물을 가공하는 데 있어 골치 아픈 과정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정말 번거롭지요!

이 세상의 사물은 그 어떤 것이든 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가공을 해야 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과 과일, 기타 먹을 것들은 우리가 즐기도록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고생스레 심고 물을 대고 계속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때로 태풍이 한번 불면 아무것도 안 남고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미련을 가질 만한 게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더 머물러 봤자 하루 더 골치만 아픈 셈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행자들은 갈 수 있는 높은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는 우리 내면의 그 어떤 갈망도 충족시켜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만물 동일체를 배우다

아프리카 작은 나무 (원문 중국어)



2001년 초, 나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지엔 사형과 통화하다가 아프리카에 와서 홍법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다.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지낸 적이 있었던 나로서는 아프리카가 물질적으로 좀 낙후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당시에는 미국으로 유학 갈 계획 중에 있어서 딱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생각지도 않게 한 회사로부터 카메룬에 상무로서 일년간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나는 아프리카를 다시 한 번 방문하게 되었다.

이어서 지엔 사형의 열성적인 협조를 받아 2001년 8월에 카메룬 센터가 세워지게 되었고 관음사자도 방문해 입문식도 열렸다. 하지만 나는 센터 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게다가 센터 위치도 별로 이상적이지 않은 탓에 카메룬 센터는 성장이 매우 더뎠다. 그러다 2002년 10월에 다른 관음사자와 지엔 사형이 카메룬 센터를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조용한 새 센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번은 지엔 사형과 얘기를 나누던 중 그가 포모사에 가족을 둔 채 혼자 아프리카에서 산 지 6년이 됐으며 일년에 이삼 개월만 포모사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재정을 들여 홍법을 돕고 센터를 세우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전에는 하루빨리 포모사로 돌아가고 싶어했는데, 어느 날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다가 스승님께서 동수들이 당신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홍법을 많이 해서 스승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한 거지요.” 그의 말을 듣고 나 역시 스승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3년 넘게 살면서도 진리를 나누는 일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 자신을 돌아켜보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그후 나는 온 힘을 다해 동포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고가 커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 생각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으며 끊임없이 득실을 따졌었다. 그런데도 스승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내게 전해져 왔다. 나는 서서히 스승의 힘에 맡기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득실을 잊어버린 채 사심 없이 일하게 되었다.

그후로 두 해가 빠르게 지나갔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상황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호전되었고 나는 물질적·영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때서야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진정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고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은 채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한 마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승님은 일을 통해 내게 수많은 진리를 일깨워 주셨으며, 빛과 소리의 명상으로 인한 강력한 힘 속에서 나의 예고는 서서히 줄어들었다. 아직 ‘만물 동일체’를 완벽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나의 ‘예고의 컵’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 그 속의 물이 사랑의 바다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서아프리카에 머무는 동안 내게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신의 사명과 사업을 아울러 하다

앙드레 매카시 사형/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 (원문 영어)

2003년과 2004년 초, 나는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왜냐하면 나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봉사했건만 그런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 요법이 점차 성행하게 된 이 무렵 나는 한 지역 회사의 약초 판매를 맡아 주로 서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내게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건 내가 딱 좋아하는 취미였다!

놀랍게도 물건을 팔러 다닐 때 만난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대해 매우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고객들과 내면의 평화, 삶의 의미, 죽음의 비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벽촌들을 방문했을 때 나는 이야기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를테면 볼란트로키(Bollantlokwe)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레벤토안(Lebetloane)에서는 몇 명의 중년 여성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으며 가하베디(Ga Habedi)에서는 청년들과 에이즈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디케부(Dikebu)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굉장히 명량한 한 여성과 그녀의 시각 장애인 남편과 함께 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무허가 판매로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의 젊은 난민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자질구레한 사항보다 자신들의 영적인 행복에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형제’라고 불렀다. 그들의 눈에서는

고국에서 겪은 끔찍하고도 잔인한 행위들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궁극적인 평화는 이 세속에서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장시간 설명해 납득시켰다.

허허벌판에다 위험하고 범죄율도 높은 보스루루스(Vosloorus)에서는 사업은 완전히 뒤로한 채 한 어린 소녀와 얘기를 하느라 거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그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넋을 잃고 들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주곤 했는데, 그 결과 한 파키스탄 남자가 책을 읽고 난 후 관음법문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 기간 동안 내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 일은 스승님의 힘으로 한 무신론자가 내면의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그와 그 부인에게 방편법을 전수했는데, 깨달음과 해탈에 대한 그 부인의 갈망은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처음 이 약초 판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낯선 지역에 가서 이렇게 천차만별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나의 일을 통해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안배가 있음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방문했던 곳 중에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나는 스승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스승님께서 또 다른 일을 안배해 놓으신 것 같아 이 판매업을 그만두어야겠다. 내게 신의 일을 함께할 놀라운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신실한 수행에 대한 보상

청하이 무상사/ 2002. 8. 4. 캐나다 토론토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동수 A: 제 삶은 확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주 조용하고 수줍음도 많아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몇 개월 지나 새 직장에서 하나씩 성공을 거두었고 경영진조차 저를 찾아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와!) 제가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스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나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훌륭합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자긍심과 자신감이 넘치고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모두 여러 영역에서 이래야 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군요.

동수 B: 스승님, 이곳 동수들은 매우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저희는 모두 스승님께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새로운 입문자들에게 “3,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질문하세요.”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예. 그러는 게 더 낫지요.

동수 B: 3년이 지나고 나니 질문이 없어졌어요. (스승님: 잘됐네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스승님: 그래요! 아주 행복하고 완전해 보이는군요.

동수 B: 저는 스승님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제자 같아요.

스승님: 천천히 하세요. 어린 시절을 즐기십시오. 너무 빨리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잃게 되니까요. 괜찮아요. 아직 어릴 때는 응석을 부리고 사랑받고 더 많은 영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지만 스승이 되면 일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스승이 일을 충분히 하지도 않고 제대로 돌봐 주지 않는다면 비난이나 합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의 행복을 잘 즐기고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부지런하고 신실하며 자신에게 성실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새 이렇게 성공한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수행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은 성과를 거두진 못합니다. 나는 정말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가족에 여러분 같은 형제자매들이 있게 된 것에 신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대중 박수)

얼매이지 앓는 마음이 깨달은 마음



청하이 무상사/ 1996. 3. 13.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36

옛날에 여러 제자를 둔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제자가 매일 스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내게 수행 일기를 써서 보내거나 여러분의 수행 진보에 대해 보고하는 것처럼요. 그 제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승님, 저는 현재 깊은 깨달음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내면의 진아를 찾는 데 쓰고 있습니다.” 스승은 첫 줄만 읽고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습니다.

좀 지나서 그 제자가 스승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오, 스승님! 지금 온 우주가 저의 깊은 내면의 생각에 응답합니다. 진리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며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숭고합니다! 우주의 힘은 또 얼마나 위대한지!” 스승은 그 편지로 코를 풀고는(대중 웃음) 화장실에 던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 스승님. 저는 지금 온 인류와 불행한 모든 중생들에 대해 자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일망정 저는 그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그의 영혼이 분투하고 있음을 느

낫습니다! 아, 스승님!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스승은 그 편지로 어딘가를 닦아 버렸습니다. (대중 웃음) 어디를 닦았는지는 다들 알 테니 말하지 않겠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고는 그것을 화장실에 던지고 희망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제자는 네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온 우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바로 저이고 제가 곧 만물입



니다! 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입니다. 오, 저 스스로 축하합니다!” (대중 웃음) 스승은 이제 편지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저 바람 따라 날아가게 두었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게 편지 쓰지 마라. 너는 종이와 펜만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는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스승은 제자에게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홀륭한’ 제자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자 스승은 편지를 보냈어요. “여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 가? 수행에는 진보가 있는가?” (대중 웃음) 아마도 그는 말도 안 되는 그 ‘대우주적인’ 편지가 그리웠었나 봅니다.

제자는 큰 종이에 몇 글자만 써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알 게 뭐니까?” (대중 웃음과 박수) 그 스승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는 커피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니, 무알콜 맥주에 세븐업을 타서 마셨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때라야 비로소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게 “스승님을, 온 우주적인 힘을 사랑합니다. 제겐 자비심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많은 편지를 쓰든 쓸데없는 말과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 선생들이 입만 뿔다 하면 자비심이니 깨달음이니 지혜니 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떠들기만 하지요. 이런 것은 아주 따분한 일이며, 또한 그들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내가 늘 말을 하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맞습니다.”) 게다가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가르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좋아하는 것을 잡아서 나를 기억하고 수행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게 될 테지만 그제 나의 가르침을 통

해서는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을 통한 건 30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하지만 많은 적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나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는 내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니까 하는 것이지 문자나 말로써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서로 깊은 유대를 형성해서 이 연결을 통해 내면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유일한 가르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이고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저 서로 내면으로 연결되어 내 내면의 진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진아를 일깨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자아들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가르침이란 게 없습니다. 영혼은 원래 무언가를 배울 필요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시공의 이원성을 초월한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9.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4

질문: 스승님께서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에서 말씀하시길 두 종류의 스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법열에 잠겨 있는 스승, 그리고 법열의 안팎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스승이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스승의 의식은 법열과 일반 의식의 등급을 왔다 갔다하는 것인지, 이원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그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같은 일입니다.

질문: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있고 내가 있으며, 천국이 있고 지구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원적인 개념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고 물질적인 환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간이 있다는 환상 때문에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고 느끼고, 시간에 대한 환상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신과 떨어져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환상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일들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하모니카를 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 하면서 동시에 해변에서 일광욕을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높은 차원에서는 일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고자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일만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여기에, 여러분은 거기에 있거나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나는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수많은 나라와 바다로 공간이 나누어집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을 보러거나 여러분이 나를 보러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내가 여러분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거나 내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기와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부대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어떤 것과 함께하길 선택할 수 있으며 있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 있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여기에는 없는 천국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두 세계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양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와 저



기에 존재할 수 있고 영국과 아프리카, 또는 그 외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차원에 따른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세계에서는 영어, 어울락어, 중국어 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여기 앉아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호주나 독일에 있는 사람이 스승에게 기도하거나 스승과 대화하기를 원하면, 그럴 정도로 수행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는 영어든 독일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로 스승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이미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후에도 계속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스승이 육신을 떠났거나 여러분이 육신을 떠난 후에도 스승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합니다.



최상의 축복은 내적 성장에서 비롯된다

청하이 무상사/ 1992. 2. 25.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19

질문: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서 세속의 일이 아닌 천상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스승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오늘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스승님: 나는 여러분이나 그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극도로 불행한 사람들이 내게 축복을 구하고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불만족스러워할 때라야 축복을 줍니다. 그 때 여러분은 내가 축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준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고자 한다면 신의 축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신의 부르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오늘밤 스승님께 축복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스승님: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이나 발, 또는 눈을 통해 한 번만 축복받는 데 지나지 않고요. 이런 것은 너무 일시적인 것일 뿐 아니라 빌린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빨리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축복은 자신의 도덕과 지성을 개발해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

러분 고유의 지혜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신과 접촉하게 되어 굳이 구하지 않아도 매일 끝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이 한량없어서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도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약간의 위안이나 순간적인 고양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적인 축복은 입문입니다. 깨달음이지요.



함께 나누면 가난은 사라진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2. 1.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SABC TV와의 인터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6

질문: 스승님께서는 재난 지역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스승님: 예.

질문: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스승님: 당신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가 따르는 법입니다.

신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잘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에 큰 물탱크를 만든다면 그것은 물을 가둬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주민들에게 물을 나눠 주기 위함인 것과 같은 것이죠. 나는 그 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해 주는 수도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 있다 해도 내가 버는 돈은 다 쓰지 못합니다. 신은 나나 내 가족, 심지어 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눕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일이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난은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왜 재난 지역에 가서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 동수들에게 보시를 하도록 권하는지 물었지요? 사실 그들은 항상 줍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기부도 하지만 매일 밥 먹고 잠자듯이 비공식적으로도 기부합니다. 이를테면 거



리에서 노숙자를 보면 주고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섰을 때도 줍니다. 그래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합니다.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면 가난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량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엔 전세계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물자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곳과 배경,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기 몫을 가지지 못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나라들을 도우려 해도 정치적 체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해냅니다. 적십자나 유엔, 다른 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돕습니다. 가난은 인류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쓰기도 남을 만큼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미덕

청하이 무상사/ 1999. 5. 20. 그리스 아테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3

질문: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스승님: 신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겠지만 신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시기만 할 뿐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창조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경험들을 선택할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인데 어떻게 신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과 하나인데 어떻게 신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겠습니까?

이건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셈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다채로워지도록 서로 다른 '사무실' 속에 격리되기로 선택하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감옥'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투쟁을 하고 혼란과 좌절, 고통을 겪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신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 신과 접촉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번뇌에서 벗어나고 항상 순탄하고 행복하며 환희와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성, 예술, 과학의 멋진 만남

‘영성과 과학 세미나’ 및 예술 작품 전시회

포모사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영성의 인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

칭하이 무상사는 수세기 동안 영성과 기술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인류가 지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러한 스승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포모사 신주 센터 동수들은 인류 의식의 정화와 고양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황금시대 1년 9월 23일에 ‘영성과 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론과 실험 증거를 강조하는 과학 연구처럼 이번 강연회 또한 두 분야를 다 포함시켰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과학과 영성 간의 고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고 두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적인 연설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아울러 스승님의 예술 작품 전시회도 개최했다. 그리고 수행의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를 제공하



기 위해 토론 후에 방법론 전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이 행사는 과학적 이론과 실증을 결합해 내면의 진아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 강조하는 이론과 실험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다.

강연회는 국립 지아오통 대학(NCTU) 도서관의 국제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근처에는 국립 칭화 대학과 몇몇 국립 연구소,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주 과학 공원도 위치해 있다. 동수들이 대학에서 강연장을 답사하고 있을 때 우연히도 NCTU의 장전엔 총장이 장소를 사용하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와 전단지는 태양계의 공전 궤도면을 배경으로 UFO와 만세등에 둘러싸여 명상하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담아 영성과 과학이 서로 함께 발전하는 황금시대를 표현했다. 행사를 준비하던 한 사형은 이 포스터에 있는 UFO가 자신이 30년 전에 직접 목격한 것과 너무 똑같은 데 대해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전단지와 책갈피, 초대장을 나눠 주는 일 외에 라디오 방송과 유선 TV 방송 광고로 행사를 알렸다. 또 이메일과 전세계 정보 네트워크인 전자 게시판(BBS)을

통해 과학 및 학술 단체에도 강연회 소식을 전했다. 이 밖에 신주에서 가장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방송 '당신과 나'의 생방송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과 도서 기증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런 광고 결과 신주 센터 경서 유통실에는 문의가 쇄도했는데, 그 중에는 명상법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영적 지식에 대한 황금시대 시민의 갈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천상의 예술 전시회와 맛있는 채식 식사

행사 이틀 전까지 신주에는 가랑비가 계속 내렸지만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날씨가 개이고 햇살이 밝게 비쳤다. 마치 신이 감로수로 신주의 기운을 정화하고 다시 좋은 날씨로 손님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같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동수들이 일찌감치 도착해서 강연장을 꾸미는 한편 행사장 밖에 눈에 확 띄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로에 깃발을 꽂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서관 전시담당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보통 이틀이 걸리는 준비 과정을 동수들이 몇 시간 만에 아주 멋지게 끝내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후 3시 회의장 로비의 예술 작품 전시회가 개막되면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시장은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 출판물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몇몇 동수들은 천상의 보석과 천의를 착용하고 방문객들에게 선보였다. 회의장 안에서는 스승님이 당신의 작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DVD가 2개의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계속해서 방영되어 예술 작품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의 주의를 끌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채식 요리도 제공되어 다른 지역 동수들에게 '별 여섯 개짜리' 음식이란 찬사를 받았다. 대부분의 방

문객들은 강연장의 고아한 분위기에 매혹되어 오랫동안 머물며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NCTU의 교수진과 학생들뿐 아



NCTU의 정보 경영 연구소의 천안빈 소장.

나라 예술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들, 학생들과 함께 온 교수 등 다른 대학의 손님들도 많이 참석했다. NCTU 정보 경영 연구소의 천안빈 소장도 오후에 예술 작품 전시장을 찾아 한동안 2000년 스승님의 타오위안 강연을 시청하며 강연장에 수만 명이 운집한 것에 놀라워하면서 저녁에 있을 세미나에도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시장을 방문한 지역 기술 회사의 CEO인 청 씨는 미국 유학 당시 한 동수를 통해 스승님을 알게 되어 산호세 센터까지 방문했었다고 한다. 또 한 회사의 연구 개발 실장인 왕 선생은 어릴 때부터 회화를 공부해 왔는데, 스승님의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스승님의 화집까지 보면서 스승님의 뛰어난 작품에 나타난 세밀한 묘사에 큰 관심을 표했다. NCTU의 장 총장도 중국 대륙 학회 회원들을 대동하고 전시장을 참관했으며 동수들은 그들을 저녁 세미나에 초대했다.

영감으로 충만한 강연과 지혜를 일깨운 명상

저녁에 이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영성과 과학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NCTU 및 근방의 전문대, 종합대학, 연구 기관, 국립 실험 연구소의 교수진 및 학생, 직원,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과학 기술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신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회회장 400석을 거의 꽉 채웠으며 매우 열렬한 호응을 보였다. 귀빈 중에는 NCTU 총장 부부, 천안빈 소장, 카이난 대학의 청귀시웅 총장도 있었다. 부인과 함께 행사 전에 도착한 장 총장은 강연장에서 강연에 앞서 상영된 스승님의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음악회를 시청하고 그의 부인은 로비에 서 예술 작품을 둘러보았다.

세미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 두 진행자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먼저 반도체업계의 명사이며 포모사 중앙 연구원의 회원이자 미국 국립 공학 학회의 해외 회원인 NCTU 장권엔 총장이 초청 연설을 시작했다. 장 총장은 연설에서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더욱 투명해지고 정화되며 깊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생각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스승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비디오와 스승님이 과학과 영성 간의 관계 및 고대 선진 문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신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 (1999년 영국 런던)’ 강연 DVD가 상영되었다.

그후 두 개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칩 제조 회사 가운데 하나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사의 품질 관리 부장인 조어난 씨가 ‘영성과 과학의 융합, 그 상호 이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정보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비추어 볼 때 다년간의 연구 성과가 고대 수

행자들이 얻은 깨달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방법을 따라 수행했을 때 스승과 같은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학적 방법에 부합된다면서 영적인 체험을 과학적인 실험으로써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 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 박사



NCTU 장권엔 총장(가운데)이 동수들과 함께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의 연구를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발명품과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은 꿈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천상에서 내려온 성인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실현됩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서 국제 분쟁과 기술 오용이 빚어낸 당급의 전세계적 위기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종교학적 측면에서 모든 종교의 큰스승들은 같은 방법, 즉 관음법문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강연을 마쳤다.

다음으로 독일 에센 테크놀로지 사의 기술 중역이었고 현재 청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류페이진 사형이 연설을 시작했다. 류 사형은 ‘이완은 학습 효율을 높이고 행복은 내적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주제의 연설에서 뇌파 이론에 입각한 학습 방법을 근거로 집중력과 긍정적인 정신 태도가 학습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마음을 집중시키면 비교적 불안정한 베타(β)파가 보다 깊은 파장인 알파(α)파로 바뀌면서 판단력과 이해력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습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 의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하고 건설적인 각도에서 주위 환경을 해석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 또한 집중과 마찬가지로 학습 효율을 증진시킨다. 이어서 류 사형은 뇌파 연구에 기초하여 잠재 능력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분석한 후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관음법

문은 뇌파를 충분히 개발시켜 내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완되게 하여 학습 효율을 증진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세미나 질의응답 시간에는 무대에서 두 관음사자가 동수들과 함께 참석자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다. 그후 명상을 배우고 수행하는 실험을 통해 세미나의 내용을 실증해 보았다. 관음사자의 지도로 방편법이 전수되었는데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많은 참석자들이 세미나의 이론을 즉각 확인해 볼 수 있었다.

NCTU 도서관에 스승님의 경서가 몇 권밖에 소장되어 있지 않아서 신주 센터는 행사가 끝난 후 독서가들이 이 신성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서를 기증했다.

무상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지혜, 신성한 사랑에 열렬히 호응한 참석자들

사람의 뇌 특성 개발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온 카이난 대학의 청귀시용 학장은 류페이진 사형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고 강의 내용을 노트에 기록했으며, 십 년 넘게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천안빈 소장도 강연 후에 동수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관음법문의 놀라움을 찬탄하고 대중을 교화하고 세계의 영성을 고양시키는 스승님의 위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참석자 중에는 한 사저의 모친도 있었다. 그녀는 십여 년 전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했는데도 줄곧 그 진리를 납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날 저녁 드디어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다음날에는 기쁨에 차서 딸을 초대해 자신의 수행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또 행사 전후로 동수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회의장 관리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대형 화면으로 상영된 스승님의 강연을 틈틈이 시청하다가 강연이 끝난 후엔 신실하게 방편법을 신청해서 수행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참석자 중 NCTU 대학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손님은 1989년에 은퇴한 후 종교 연구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방편법을 배운 후 스승님의 책을 『금강경』과 여러 번 비교해 본 결과 관음법문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또 다른 손님은 “오늘 두 분의 강연은 깊은 영적 의미와 함께 많은 깨달음을 시사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녀는 방편법을 배운 후에도 작업팀을 찾아가 오늘 강연을 녹화한 테이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방편법 수행자는 2003년 병이 났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 꿈에서 스승님의 화신이 자신을 구해 주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이날 강연에서도 동수들의 영혼이 아주 순수한 것을 보았다. 또한 행사 후 꿈에서 자비롭고 고귀한 천상의 호법 형태로 화현한 동수들이 자신을 곤경에서 구해 주었다고 했다. 이 외 바쁜 일정 때문에 이날 강연회에 올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사가 언제 또 열리느냐고 문의했다.

결론: 새로운 영적 각성

스승님께서 1988년 NCTU 대학에서 강연을 하신 지 16년 후, 신주 센터는 같은 대학에서 대규모의 세미나와 예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영성과 과학, 예술을 두루 아우르는 방식으로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과 메시지를 전파했다. 신주 지역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은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다. 또한 학계와 첨단 기술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세인들이 과학과 영성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번 행사로 과학 기술 분야에 영성의 씨앗이 많이 뿌려졌다. 이러한 강연으로 인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황금시대에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류에게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위 행사의 주요 내용은 Sun TV '예술과 영성' 제116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청 URL: <http://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과학 연구와 영적인 지혜는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

청하이 무상사/ 2000. 5. 8. 한국 서울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94



금세기에 들어 이 세계는 과학과 기술,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영적인 지혜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과학 기술과 기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의존하면서 보다 영속적인 참된 자아와 참된 세계는 의지하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잘 다룰 만한 충분한 영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자멸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관음법문은 가장 정확한 과학

청하이 무상사/ 1991. 3. 16.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 (원문 어울락어)

중문판 즉각 깨닫는 열쇠 제9권



관음법문이란 이 과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그 어떤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과학은 지금은 맞게 보이지만 내일이면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으나, 나와 동수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과학은 결코 틀리기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경지가 다르더라도 이 관음법문의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같은 시간에 입문을 한다 해도 각자의 수준은 모두 다릅니다. 만일 이들 중에서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경지가 다르긴 하지만요. 이를테면 4명은 1세계에 있고 3명은 2세계에, 2명은 4세계에, 그리고 1명은 5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같은 경지의 사람들은 모두 그 경지에 따른 특정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과학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빛 속에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 아시아인들

관음사자 (원문 중국어)

전통 문화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영적 수양은 많은 동남 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최근 나는 동남 아시아를 여행하며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싱가포르 등지의 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빠듯한 일정으로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각 지역 센터의 입문식과 단체명상에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강렬히 느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매우 순수하고 소박하다. 인도네시아 발리와 수라바야 센터에서는 평일 저녁에 입문식이 있었는데, 현지 동수들은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센터를 찾았고 예비 입문자들은 입문식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내기도 했다. 그 다음날 내가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동수들은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입문식이 끝난 후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추가로 단체명상을 했다. 입문식이 밤늦게까지 진행됐는데도 동수들은 모두 매우 신실하게 스승님의 만세등에서 흘러나온 신성한 불빛 아래서 편안하게 명상을 했다. 또 자카르타 센터에서는 입문식을 행할 때 근처에서 경기가 열려 시끌벅적했는데도 동수들은 그런 소음에도 아랑곳없이 매우 깊이 집중된 상태로 명상하며 내면의 사랑과 축복을 즐겼다.

라오스 센터는 관음 가족의 새 식구들이다. 라오스인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문화의 영향 속에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건강 채식 풍조가 자리잡기 시작



방콕 경서실의 예술 화랑.

함에 따라 이곳에서는 간단한 채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로 이웃인 태국 동수들은 언제나 라오스 동수들에게 지원과 관심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두 나라 사람들은 마치 형제자매처럼 지내는데, 대부분의 라오스인들이 태국어어를 할 줄 알아서 태국어로 된 스승님의 뉴스잡지와 기타 출판물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라오스 동수들에게는 이런 출판물이 가장 진귀한 신의 메시지이다.

태국 방콕 센터는 정기적으로 선일과 선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열망하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센터 1층에 도회적인 감각으로 설계한 경서실



을 마련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서실 한쪽을 전문 화랑처럼 꾸며 놓고 스승님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또한 방콕 센터는 수시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방문했을 때 강연회에서 스승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신청해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강연회 흥법에 참여한 방콕 동수들은 다른 사람이 수행을 하도록 돕는 것이 곧 자신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적 등급이 올라감을 느끼면서 태국 사형사자들은 자연스럽게 천상의 축복과 단순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로 동수들과 함께 단체명상을 했다. 명상 전에 스승님의 강연 DVD와 TV 프로그램인 '예술과 영성'도 한 편 시청했는데, 스승님의 강연을 집중해서 시청하면 마음이 안정

되고 명상 중 삼매에 들기 쉽기 때문에 비디오 시청은 매우 유익하다. 명상이 끝난 후에는 스승님의 최신 출판물을 소개하는 짤막한 동영상 슬라이드를 봤는데, 스승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참석자들 모두 그 축복에 취했다. 예비 입문자들의 경우 입문 전에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가능한 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신의 영성의 양식을 흡수할 수 있다면 수행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지고 명상을 통한 성과도 커져 영적 수준이 매우 빨리 높아질 것이다.

이번 동남 아시아 여행을 통해 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신의 사랑과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백천만 겁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특별한 기회를 잡아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하여 함께 깨달음과 환희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희망해 본다.

고대 문명으로 다시 돌아온 관음법문

관음사자 (원문 중국어)

스승님의 자비와 소수 이란 동수들의 고생 어린 노력으로 이란에 관음법문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워 꽃이 만개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최근 관음 가족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나라의 평화롭고 눈부신 미래를 위해 더 큰 긍정적인 힘을 실

어 주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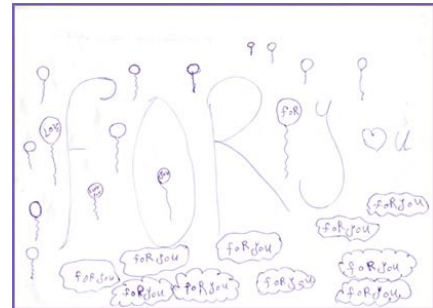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은 한 이란 사형의 입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외국에서 입문한 그는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이 법문이 자신이 신봉하던 이슬람 신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

는 내면의 빛과 소리에 대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온갖 장애를 극복하며 채식과 명상 수행을 계속하는 한편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 수승한 수행법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지혜와 사랑, 신심, 신실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관음법문에 입문하고자 갈망하게 되었고, 이에 자비로운 스승님은 관음사자를 파견해 이란 형제자매를 위해 입문식을 거행하게 하셨다.

예비 입문자들은 관음사자에게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관음법문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만족스런 미소를 띠며 즐거운 마음으로 입문했다. 새로운 입문자들은 모두 입문식 동안 내면의 빛과 소리의 놀라운 체험을 하며 큰 축복을 받았다.

그 중 한 할머니 동수는 고질적인 요통으로 인해 방편법을 수행할 당시 10분 이상 명상을 할 수 없었는데, 관음사자의 방문 기간 중에 있었던 단체명상에 참석해서는 두 번이나 깊은 삼매에 들어 깨어날 줄 몰랐다! 이 사저는 명상 시간 내내 장엄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똑바로 앉아 명상했으며, 삼매에서 깨어난 후에는 내면에서 보았던 수많은 아름다운 빛에 대해 설명해 다른 새 입문자들의 신심을 더욱 키워 주었다. 그녀를 관음법문에 소개한 사형은 그녀에게 관음법문의 이로움을 이해시키고 방편법을 시작하게 하는 데 4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이제는 명상을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공감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새로 입문한 한 사저는 관음법문과 이슬람교가 정말 대단히 흡사하며 관음법문을 한 후 이슬람교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무슬림 여성들이 두건을 하는 진정한 의미와 기도용 매트가 무슬림들에게 왜 그렇게 신성한 것인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이란 사저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명상 수행을 반대했지만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지진 이





재민들을 돕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조대의 편견 없고 이타주의적인 정신을 보고 나선 다시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승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감동한 그녀의 아버지는 이번에 방문한 관음사자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하듯 열렬하고 정중하게 환영했다.

이란 동수들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고대 경전에 기록된 ‘관음법문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스승님은 1999년 터키 강연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하지만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만 선지자 마호멧이 메카 산 동굴에서 천사와 소통했던 경지

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사실상 관음법문은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신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깊고도 조용한 기도라 할 것이다.

매우 순수하고 선량한 이란인들의 땅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 동수들과 그 자녀들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나중에 그 중 10대 몇몇이 사랑과 우정을 전하는 그림을 그려 내게 선물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사진 참조) 바라건대 이 선량하고 순수하며 신실한 이란인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해 하루속히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살아 있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어서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 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888@hotmail.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 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장 빛나는 성스런 의식(儀式)

아르카 사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원문 영어)

2004년 9월 12일 일요일, 신의 은총으로 가득 찬 이날 자카르타 센터에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식이 열렸고 나는 이날 호법을 맡게 되었다. 스승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이런 뜻깊은 행사의 호법까지 맡게 되자 나는 더욱 큰 특혜를 입은 느낌이었다.

입문식이 시작됐을 때 나는 신의 지고한 사랑이 현현하는 위대한 현상과 스승님의 힘이 참석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많은 동수들이 수년간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입문식 때 체험한 이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이 크나큰 축복의 힘을 당연히 여기는 듯하여 동수들에게 이전의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나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입문식이 열리던 날, 때마침 센터 맞은편의 운동장에서는 시끌벅적한 음악과 함께 농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입문식은 평소대로 진행되었고 예비 입문자들도 소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은 채 관음사자의 설명과 지시에 주의 깊게 귀기울이고 있었다.

입문식 명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새 입문자들 쪽을 보고 있다가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트리듯 강한 강렬한 빛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강렬한 빛은 홀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동수들은 그 빛에 비추어지자 각각 눈부신 순백의 존재로 변해 버렸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더 크고 더 강렬한 또 다른 빛이 재빨리 입문식장을 훑고 지나

갔다. 빛이 움직이는 동안 인간의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인체 크기의 크고 작은 밝은 불빛만 보였다.

얼마 후 그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빛이 또 한번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번에 터지는 것 같았다. 이 빛이 온 방안을 살살이 훑고 지나가자 내 몸의 일부가 같이 옮겨간 듯 나는 갑자기 무게감이 없어졌다. 그 순간 내 앞에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불빛이 하나의 눈부시게 빛나는 빛의 바닷속에 녹아들었다. 거리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나 자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방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이 빛의 바다에 용해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름 모를 악기로 연주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 들어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체험은 관음사자가 입문식이 끝났음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입문식이 끝났을 때 나는 법희로 충만해진 느낌이었다.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차 올랐다. 또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갑자기 내 생에 일어났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사형사저들,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이런 무한한 영광과 사랑을 목격할 기회를 주신 신과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금 길을 걷다

라파엘라 디아고스티노 사저/ 영국 런던 (원문 영어)

2004년 7월 나는 백혈병으로 화학 치료를 받고 있던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석 달간 머물다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가족 중 채식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개월 내내 혼자서 명상하는 것도 힘들고 그들과 같은 주방 도구와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게다가 우리 가족은 식사 때 와인까지 마신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들이 자신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을 내 행동을 용인해 주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내면으로 향하고 끊임없이 스승님께 우리 가족을 도와 달라고 기도했으며 내 방에서 스승님의 불찬을 계속해서 틀어 놓고 가능한 한 오불을 많이 외웠다. 그리하여 나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동안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다. 언니의 상태도 내가 같이 있는 동안 70퍼센트가량 호전되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다시 관음 가족들과 만나 런던 센터에서 단체명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단체명상에 참석하게 되다니 정말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한 느낌이었고 스승님에 대한 헌신과 순수한 사랑을 느꼈으며 일본일초가 소중히 여겨졌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선물이었으며 오랫동안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는 언니가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상태가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더할 수 없이 기뻐다.

또한 나는 아주 운이 좋게도 두 사형이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참에 일상

적으로 아침 출근 전에는 각자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단체명상을 했다. 이 기간 중에 나는 여태껏 못 느꼈던 엄청난 고양감을 체험했고 이 고양감은 순수한 축복과 함께 날마다 강해졌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체명상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니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 같다. 나는 지금껏 이렇게 삭막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든, 사소한 일에 대해서든, 심지어 러시아워 동안에도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변의 무거운 에너지 속에서도 이토록 신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와 함께 사는 동수들은 내겐 아주 특별하다. 우리는 퇴근해서 돌아오면 채식 잔치를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단체명상을 하는데, 아주 멋지다! 저녁 단체명상을 하고 나면 아침 명상도 큰 기쁨이 된다.

얼마 전 언니가 전화를 해서는 암세포의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DNA 테스트를 한 결과 몸에 암세포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얘기했다! 암세포들이 말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화학 요법을 받은 지 6개월 된 언니는 이제 놀랍게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세 살배기 딸도 돌보고 있다.

스승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생에서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된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다. 또한 이 훌륭한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고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명상을 계속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미소를 띠고 감사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관음법문의 스승이자 채식 주창자

사랑빛 사저/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원문 영어)

국제 생명 기원사(International Biogenic Society)에서 출판된 『에세네 평화의 복음서: 제1권』과 『에세네 평화의 복음서: 제4권-선민(選民)의 가르침』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관음법문을 가르쳤으며 채식을 주창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구절들이 나온다. 이 원문들은 바티칸 비밀 문서의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필사본과 함스부르크 황실 도서관(현재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 소장된 고대 슬라브어 문서를 에드몬드 보르두 즈켈리 씨가 번역한 것이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 책들의 요약본을 읽을 수 있다.

http://www.thenazareneway.com/index_essene_gospels_of_peace.htm



예수의 채식주의 주창

『에세네 평화의 복음서: 제1권』에는 채식에 대한 예수의 견해를 명확히 보여 주는 수많은 인용구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분인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깨끗한 짐승의 살을 먹는 것을 허용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살을 먹는 것만을 금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동물의 살을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대체 어떤 법이 하느님의 법입니까? 모세의 법입니까, 당신의 법입니까?”

예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하느님이 너의 조상에게 ‘죽이지 말지어다.’라고 명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여 살생을 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들이 최소한 사람만은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짐승을 죽이듯 사람도 죽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나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이지 말 것이며, 네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생기 있는 음



식을 먹으면 너희도 빠르게 생기를 얻을 것이요, 네가 음식을 죽인다면 그 죽은 음식이 너를 죽일 것이니라. 생명은 본디 생명에서 나오고 죽음은 언제나 죽은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어서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너희가 먹는 것은 너희 몸을 위한 것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정신을 이룬다. 그러나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과 들판에 있는 모든 풀, 먹기 좋은 짐승의 젖을 먹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불로 자라고 숙성한 것이며 모두 대지 어머니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불이 맛을 내는 것은 그 무엇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사탄의 것이니라. 그러나 항상 신의 식탁에 있는 음식만을 먹도록 하라. 나무의 과일과 들판의 곡식과 동물의 젖과 벌꿀이 그것이

다. 이 외의 것들은 모두 사탄의 것들로서 죄와 질병의 길로 이끌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신의 풍요로운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너희 몸에 힘과 젊음을 주며 너희는 결코 질병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이 에세네파 경전 내용은 에세네파에 뿌리를 둔 예수의 수행과 채식 전통에 대한 칭하이 스승님의 다음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태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는 채식을 하는 가정, 즉 전통적으로 채식을 하는 에세네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공부하려면 성경이 아닌 별도의 책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아닌 별도의 책’이란 『에세네 복음서』를 가리키는 듯하다.



빛과 소리의 명상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에세네 경전에는 예수 자신이 빛과 소리의 명상법을 가르치는 스승임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예컨대, 『에세네 평화의 복음서: 제4권-선민(選民)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내면의 음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내 너희에게 진실되게 이르나니, 대지의 어머니와 그녀의 모든 천사들에게 생명을 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노라. 이 생명의 흐름은 사람의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나 빛의 자식에게는

천사들과 교류하는 비밀이 주어졌노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눈들이 열릴 것이니 대지의 어머니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흐름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되리라. 너희는 그 신성한 생명의 흐름에 들어갈 것이며, 그 흐름은 너희를 끝없이 부드럽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끌어 영생(永生)을 누리게 할 것이다.”

같은 글에서 예수는 먼저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도달해야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제기



했다. “태초에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준 신성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었다. 천국의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 너희는 신성한 음류를 들을 것이니, 이는 침묵 속에서만 들릴지이다. 사막에서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친 후 생겨난 계곡 물과 물이 휩쓸고 지나갈 때 포효하는 듯한 소리를 생각해 보라.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신의 소리이다. 경전에 씌어진 대로 태초에 소리가 있었나니, 그 소리는 하느님과 함께였으며 그 소리가 곧 하느님이었느니라. 그것은 줄곧 우리 귀 안에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정오의 침묵 속에서 이에 귀를 기울이라. 그 안에 잠겨 신성한 음류와 하나가 될 때까지 신의 음악 리듬이 너희 귀에서 울리도록 하라. 이 음류는 너희를 세상의 리듬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으로 데려갈 것이니라.”

또한 예수는 『선민(選民)의 가르침』에서 빛의 명상을 주창하기도 했다. “잠들기 전, 밝고 찬란한 별, 하얗게 빛나고 가장 멀리 보이고 가장 멀리까지 꿰뚫고 나가는 별들을 생각하라. 잠들기 전 너희의 생각을 그 별들과 함께하도록 하라. 그 별은 빛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빛이라. 심지어 그 빛은 수천 개의 태양보다 수천 배가 밝으리라. 그 신성한 빛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죽음의 족쇄에서 영원히 벗어나며 지상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리니, 강렬한 별의 광휘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오르리라. 태초에 신성한 법에 기록돼 있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과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그 신성한 빛

의 흐름의 힘이 너희 몸을 가득 채우고 너희는 그 권세 앞에 전율케 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는 소리와 빛의 힘을 해탈과 깨달음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요약하며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진실로써 이르나니, 너희 귀는 그저 사람의 말과 새들의 지저귐, 빗방울 떨어지는 음악만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음류도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너희 눈 또한 그저 일몰과 일출, 곡식의 물결과 성스러운 두루마리의 글을 보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빛의 흐름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신성한 흐름으로 들어가라. 그 생명, 그 소리, 그 빛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르러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니라.”

『에세네 평화의 복음서: 제1권』과 『에세네 평화의 복음서: 제4권-선민(選民)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빛과 소리, 그리고 채식에 대한 오래전 예수의 가르침이 담긴 필사본을 읽으면 현재 칭하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두 스승 모두 빛과 소리의 명상법(관음법문)과 채식이 진실로 해탈과 천국에 이르는 신성한 길임을 밝히셨기 때문이다. 예수와 칭하이 스승님의 가르침은 역대 모든 큰스승들이 공표해 온 영원한 진리의 메시지이다. 스승님의 다음 말씀처럼 말이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예수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역대 모든 스승들을 통해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 무지한 이들을 해탈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동물 해부의 감소는 인류의 자비심 확장의 증거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최근 CNN 웹 사이트(<http://www.cnn.com/>)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가 과학과 생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동물 해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고 한다. 버지니아 주의 합세에 따라 학생들에게 고양이, 지렁이, 돼지 태아와 기타 생물들의 해부를 거부할 선택을 허용하는 주(州)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인류가 황금시대로 들어서면서 생겨난 이러한 변화는 동물을 보다 자비롭게 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은 동물 친구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특별히 민감한 편이다. 버지니아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레이스 켄달(Grace Kendall) 또한 7학년 때 이미 과학 시간에 보존 처리된 개구리를 해부하고 싶지 않았다고 회상하면서 당시 그녀의 선생님은 그 대신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그녀는 그 이후 동물 해부를 거부해 왔다. 그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죽은 동물을 해부하는 게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어요. 살해된 생물을 해부해서 배운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의 성숙되고 자비로운 감정은 전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대하

고 있음을 크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채식과 동물의 권익 향상 운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레이스는 버지니아 주가 미국의 다른 주들에 합류하여 학생들이 동물 해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가 시작하면 모든 버지니아 주 학생들은 별점을 받지 않고도 동물 해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정, 인터넷 학습과 플라스틱 모형 등의 대안적인 학습 도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은 또한 많은 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중 버지니아 주 로아노크 카운티에 있는 케이브 스프링 고등학교의 해부학과 생리학, 생물학 주임 교사이자 전미 생물학 교사 협회의 차기 회장이기도 한 레베카 로스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녀는 도덕적·철학적·종교적 혹은 윤리적인 이유로 해부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다른 대안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버지니아 주는 해부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에 요구한 미국 내 9개 주 중 하나이다. 1985년 플로리다 주



가 이러한 법을 최초로 통과시킨 데 이어 1988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그 뒤를 이었고, 뉴저지 주 역시 현재 비슷한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인도, 이스라엘에서 학교에서의 동물 해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부를 거부하는 이러한 추세는 ‘동물의 인도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과 ‘미국 인도협회’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등과 같은 단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 단체들은 해부용 동물들이 포획과 처리, 살해되는 과정 동안 고통을 당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실습은 동물의 생명 가치를 경시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실습 거부를 격려했다.

“우리는 해부 수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법이며 동물 학대 성향을 조장한다고 믿습니다.” PETA의 재클린 도마크(Jacqueline Domac) 여사의 말이다. 인도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개구리, 돼지 태아와 고양이가 주를 이루는 동물들 6백만 마리가 매년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해부되고 있다고 한다. 협회는 해부 반대 비디오를 배포하고 학교측에 대안 학습 소프트웨어를 대역함으로써 미국 교육 체제에서 해부 실습이 폐기되도록 돕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해부를 폐지하려는 운동은 인류의 자비심과 만물 동일체라는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대로, 우리는 동물 친구들의 복지와 우리와 함께 공존할 그들의 권리에 대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간과해 왔다.

“수천 년 동안 우린 동물과 같은 우리의 어린 형제자매들을 포함해서 서로에게 비우호적으로 대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바람직하지 못한 열매의 씨앗을 너무나 많이 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열매를 거두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을 숭배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바칠 제물을 위해 살생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으니, 우리의 이 무상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난과 질병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종교입니다.” (비디오테이프 No. 395 ‘사랑만이 유일한 종교이다’에서)

고기 위주의 미국 명절 음식에 대안적인 채식 요리가 늘어나다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지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수백 년 동안 칠면조 구이와 햄, 미트 소스와 기타 육류 요리가 대표 음식으로 자리잡아 온 미국 추수감사절에 채식과 비건(vegan) 요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 2004년에는 두부와 밀고기로 만든 ‘칠면조 구이’,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호박파이와 기타 채식 식품의 판매량이 장족의 발전을 했다. 전에는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이러한 제품들이 현재는 대형 슈퍼마켓의 주류 품목이 된 것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보다 건강한 삶과 자비로운 식생활 지향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영양학자이자 워싱턴 주 배스티어 대학교의 강사인 신시아 레이(Cynthia Lair)는 “훌륭한 성찬이란 양질의 재료로 만들어져야죠.”라고 말하며 이러한 추세에 건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터틀 아일랜드 푸드의 창립자로서 두부 칠면조 구이(두부, 밀단백, 채식 양념과 향신료로 만들어진 채식 칠면조 요리)를 생산하는 세스 티보트(Seth Tibbott)는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왜 죽은 새를 식탁에 올리는지 우리에게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터틀 아일랜드 푸드사는 1995년 추수감사절에 두부 칠면조와 고명, 육즙과 콩으로 만든 내장(가짜 칠면

조 내장)이 포함된 개당 20달러짜리 4인용 두부 칠면조 특별 요리 세트를 몇 십 개밖에 팔지 못했으나 2004년 추수감사절에는 약 16만 개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과 생태학, 윤리적 이유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 제품의 제조사는 그와 동등한 높은 의식 수준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터틀 아일랜드 푸드사의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고향인 터틀 아일랜드(북아메리카를 지칭하는 인디언 용어)의 주민들과 생태계를 지키는 식품을 공급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맛있고 영양가 높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채식 식품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상업적인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고상한 사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이는 황금시대가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무수히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보다 민감해지고 자연스런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채식 칠면조를 비롯한 채식 요리의 생산 및 소비 증가에서 보이는 채식 위주의 삶과 높은 이상을 지향하는 추세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이 계속 따르기를 희망한다.

일본 소식

태풍과 지진 피해자들에게 사랑과 위안을 가져다주다

도쿄와 군마 센터 (원문 일어)



폭풍우가 모질어도 사랑의 힘은 더 강하다

2004년 10월 20일 오후 1시쯤, 태풍 도카게가 일본 고치 현을 강타한 데 이어 저녁 6시쯤에는 오사카 현에 다시 한 번 상륙했다. 태풍의 눈이 혼슈 섬 전체를 가로지른 데다 폭풍의 범위가 워낙 컸던 탓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은 또한 전국의 광대한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동반해 심한 홍수가 잇달아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효고 현과 교토 현으로서 4만여 명의 주민들이 쫓기듯 집을 비워야 했으며, 효고 현 도유카 시는 가구 중 90%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

군마 센터 동수들은 자비로운 칭하이 스승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다음

날 새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 지역으로 출발했다. 도로가 상당수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해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진입이 어려워져 도유카 시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12시간가량이 걸렸다. 군마와 도쿄 센터는 활동 계획을 논의한 후 서로 합심하여 4톤 트럭을 구해 가장 시급한 생수와 이온 음료를 가득 싣고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에게 시기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온정 어린 배려가 지진 피해를 경감시킨다

일본 사람들이 태풍 도카게의 영향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10월 23일 오

후 강도 6.8의 강진이 일본 북동부 지역인 도호쿠에서 긴키에 걸쳐 발생했다. 진앙은 니가타 현 주에쓰(중부 니카타)였다. 주 진동 후 대규모의 여진이 수차례 이어져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고 신칸센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열차가 탈선했으며 주변 지역에선 물과 전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많은 마을이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마치 고립된 섬같이 되었다.

이에 스승님은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주도록 일본 동수들에게 지시하였다. 스승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재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군마와 도쿄 센터는 각각 구호 활동에 착수했다. 도쿄 동수들은 세 조로 나뉘었는데, 그 중 제1조는 10월 24일에 먼저 니가타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이 수용돼 있는 한 중학교에서 간식을 나누어 준 후 미쓰케 시로 서둘러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보니 도로가 심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집들이 산사태로 무너져 있었다. 미쓰케에 도착한 동수들은 구호 물자 센터에 10여 상자의 광천수를 기부하고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주변 주민들에게 26상자의 광천수와 7상자의 간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모두들 동수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표실했다.

제2조는 10월 27일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오지야 시로 향했다. 이곳 산간 도로가 모두 파손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마을로 가는 길을 발견해 가와이 지역에 있는 4개의 부락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길이 파손된 것을 알고는 자기 밭에 구불구불한 임시 도로를 만들어서 구조 팀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8일에는 구입한 손전등과 전지, 사탕 등의 물품들과 한 점포 주인이 기부한 담요 20장을 가지고 이와사와 지역에 있는 작은 부락 세 곳을 찾아갔다. 주민 대부분은 친척과 친구 집으로 이미 피신해 있어서 부락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던 노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원조 물자를 받고선 너무나 기뻐했다. 구조 팀은 이 지방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그 지역을 떠나 올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누군가 때마다 나타나 길을 가르쳐 주곤 해서 정말 신기했다.

29일, 동수들은 근처의 요시타니 마을이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

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 즉각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물품을 파악한 동수들은 손전등과 전지, 과일, 주먹밥, 작은 난로 등을 구매했다. 여기에 전에 담요를 기부했던 그 점포 주인이 다시 한 번 담요와 식기를 기부해 주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구호 물자를 받고서 크게 기뻐했다.

제3조는 오지야 시에 도착해 손전등과 핫팩, 바나나, 인스턴트 국과 캔 식품을 나누어 주었다. 이 지역의 많은 집들이 무너져서 동수들은 피해자들을 도와 무너진 가옥과 전담도 청소해 주었다.

30일 저녁, 제2조와 3조는 힘을 합해 복지 센터의 이재민들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미국식 토마토 수프와 야채 우동 등의 음식을 해주었다. 복지 센터에서는 약 200명의 이재민과 전국에서 온 백여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에 사람들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고 동수들 또한 큰 힘과 기쁨을 얻었다. 31일 새벽, 동수들은 주먹밥



을 준비해 제2조가 찾아갔던 마을을 다시 한 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밥을 짓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단체에서 대형 전기 밥솥을 빌려 줘서 ‘수행자의 바람은 항상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다. 구조 팀 대원들은 250개의 주먹밥을 준비해 요시타니로 보냈다. 금

방 해서 보낸 음식은 이재민의 손에 따뜻한 채로 도착해 그들의 몸과 영혼 모두를 훈훈하게 데워 주었다.

사랑으로 준비한 우동이 이재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다

군마 센터의 선발대 동수들은 10월 23일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피해 지역에 들어가 태풍 도카게로 인한 피해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먼저 도유카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러 갔던 동수들도 다음날 새벽 니가타로 향해 구호 물자를 나누어 주었다. 센터에서 항시 대기 중인 지원 팀은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현장에 나가 있는 구조 팀과 긴밀히 연계해 최신 소식을 바로바로 제공했다. 도쿄와 군마 동수들은 함께 상의한 끝에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분유와 종이 기저귀, 화장지 등의 물자를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이 물과 전기,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마른 음식만 먹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뜨거운 우동을 끓여 주기로 했다.

도움이 무척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하기 위해 사형사자들은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갔다. 이곳은 재난 피해가 극심한 데다 정부 차원의 구호 활동도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파손되어서 구조 팀은 빙빙 둘러 가야 했다. 어떤 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가 붕괴되고 노면이 뒤틀리고 변형되기도 해서 동수들은 속으로 계속 오불을 외우며 험난한 산길을 계속해서 헤쳐 나갔다. 그렇게 하여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지역민들조차 다닐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길을 우리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구조 팀은 우선 벽지의 초등학교와 복지 센터, 어린이집 등지에서 우동을 요리해 주었다. 이곳으로 피신한 이재민들의 수는 우리의 당초 예상보다 몇 배나 많았지만, 7명의 동수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맛과 향을 고루 갖춘 맛있는 우동을 요리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빵과 패스트푸드만을 먹은 이재민들은 정성을 들여 여러 가지 재료가 넉넉히 들어간 뜨거운 우동을 먹게 되자 정말 좋아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우동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우동은 처음 먹어 본 다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병 중이던 한 노인은 “지진이 일어난 후로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 봤어요. 덕분에 몸까지 좋

아졌는걸요!”라고 했다. 또 기력이 없어 누워 있던 다른 노인의 며느리도 “지진이 일어난 후 저희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드시질 못하면서 그래도 우동이라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며칠 만에 처음 드시는 식사인데 좀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했다. 우리는 스승님이 왜 우리를 이 먼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동수들에게 있어 식품과 주방 기구, 물, 텐트 등등의 장비들을 이곳 저곳으로 수송하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지만, 이재민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값진 의미가 되었다. 재난으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동수들은 준비한 우동에 여러 가지 맛있는 재료를 더 많이 집어넣었다. 또 이재민들뿐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면서 밤낮으로 공익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재난 복구 작업 대원들에게도 우동을 제공했다. 그 중 전기 회사의 기술자들은 동수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한 후 쏟아지는 빗속에서 전주를 타고 올라가 곳곳하게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동수들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어떤 수



혜자들은 합장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어떤 이는 고개 숙여 인사를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기 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동수들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 외에 와병 중인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축복 음식과 약품, 핫팩, 물 티슈 등의 물품들을 나누어 주며 위로했다. 일부 노인들은 동수들에게 지진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토로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재난이 닥치던 상황을 생생하게 얘기해 주기도 했다. 동수들은 많은 노인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위안을 전달했다.

재난 구호 활동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동수들이 방문한 곳은 모두 정전된 지역이었는데, 그곳 이재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으며 잠을 자더라도 곧 여진 때문에 깨어나곤 했었다. 그러나 몇몇 장소에서는 이재민들이 동수들이 해준 우동을 먹

은 후 곧 전기가 들어오고 불빛도 들어왔다! 스승님이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진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맺음말

도쿄와 군마 동수들은 이번 태풍 및 지진 구호 활동을 하던 중 일손이 부족해도 내면의 스승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다면 겉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은 무

형의 갑옷처럼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아무 문제 없이 물질적·정신적 위안을 가져다줄 수 있게 해주셨다.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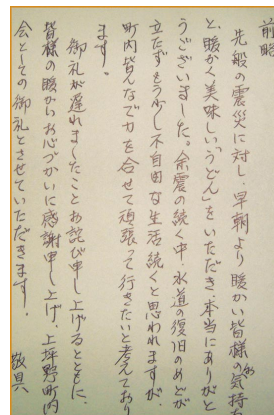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지진이 발생한 이후 새벽부터 따뜻하고 맛있는 우동을 제공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미쓰보노에는 아직도 간헐적인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물도 언제 다시 공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민들이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의 편지를 늦게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온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본 니가타 오지야 가미쓰보노 시민 일동

(원문 일어)



일본 태풍 및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기부금 지출 내역

(단위: 일본 엔화)

재난 사유	지출 내용	금 액	부 록
태풍	물, 수송	486,322 (US\$4,694.54)	A1~5
지진	*음식: 물, 분유, 과일, 야채 캔 식품, 쿡다백, 우동면, 양념 *요리 기구 *일용품: 아기 기저귀, 위생용품, 1회용 식기, 슬리퍼, 손전등, 핫팩, 이동용 난로, 담요, 약품 *수송비, 차 연료비	1,433,872 (US\$13,789.44)	B1~24
합계		1,920,194 (US\$18,483.98)	



파나마 소식

파나마 대홍수를 통한 인류의 유대

파나마 뉴스그룹

2004년 10월 22일 저녁 파나마 동수들은 파나마 지역에 내린 거센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했다는 TV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스승님의 도움으로 파나마에 발생한 홍수 피해 구호 활동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닥친 이번 홍수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이재민들이 집과 전 재산을 잃었다.

10월 22일 홍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구조대 동수들은 파나마 시에 없었다. 그러나 스승님의 안배로 파나마 시에 머물고 있었던 구조대의 한 사제가 다음날 아침 의류와 매트리스, 구호 물품을 피해를 입은 리오 카브라 지방의 여러 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다.

나중에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이 구호 대열에 합류하면서 구조대가 방문한 적이 없었던 누에바 에스페란자 아리바와 아놀포 아리아스 카키노스 드 오마르와 같은 지역의 100여 가구에 많은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한 지역의 이재민들은 매우 단결되어 있고 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 주어서 매우 놀라웠다. 그들은 한 집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며 신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에 우리는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물자들이 전능하신 신과 칭하이 무상사에게서 온 것이며 우리는 단지 신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물품을 받아서 한 여성이 서둘러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의 자애로운 스승님께 이렇게 많



은 생필품을 공급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했다.

구조 대원들은 꼬박 일주일을 쉬지 않고 구호 활동을 하느라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였으나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파나마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 이 기회로 파나마 국민들이 스승님을 알게 되었으며 수천 가구에 구호 물품을 지원해 주신 스승님께 매우 감사드렸다. 이 구호 활동 동안 우리에게 인류의 단합되고 행복한 모습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국에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모사 타이베이 소식

어떤 사람들은 빛이 다가오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빛을 찾아 사방을 헤매며,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켜 온 세상을 밝힌다.



장애우의 세계에 떠오르는 태양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중추절 저녁 타이베이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 동수들은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온정을 가득 채운다’ 행사에 참여해 타이베이 현 바리 향 화푸산에 있는 ‘아이웨이’ 요양 센터의 중증 장애우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에 고무된 동수들은 이 행사 동안 아이웨이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성인용 기저귀와 종이 패드, 비스킷과 과자류, 동수들이 손수 만든 월병 등을 기증했다.

아이웨이 센터의 천리루 소장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저소득층 출신이라고 한다. 그 중에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고 병상에 자리 보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있었다. 현재 이들은 사회 복지 기금이나 이웃의 원조 같은 재정 지원만을 받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들의 일용품과 기저귀, 침대 시트 등을 대기 위해 매달 1백만 NT 이상이 지출돼서 큰 부담을 안고 있

었다. 천 소장은 감동 어린 목소리로 “이 일은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주기만 하는 일입니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동포애, 그리고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에 기초한 종교적인 감정입니다.”라고 얘기했다. 이 시설에 근무하는 소수의 종사자들은 번갈아 일하며 192명의 수용자들을 빠짐없이 돌보고 있다. 그들은 기증받은 몇 대의 컴퓨터로 컴퓨터 연습실을 설치했는데, 장애우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 바깥 세상과 접

축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오그라진 손가락을 펴는 연습도 한다. 또 종사자들은 손가락만 대면 작동할 수 있도록 된 작은 시청각실도 만들었다. 종사자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조금씩 제작된 재활 장비들이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을 보고 방문한 동수들은 진심으로 경탄과 찬탄을 금치 못했다.

만나절 동안의 방문으로 동수들은 아이웨이 센터 장애우들의 삶에 아침 해를 가져온 천 소장과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방문한 동수들은 우리가 스승님의 안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인류가 아직도 생명의 빛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 운이 좋은 관음 가족 동수들은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 아침 해와 같은 아이웨이 센터 종사자들처럼 모든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포모사 화렌 소식

광명을 맞이한 가석방자들

화렌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9월 17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과 화렌 지방 법원 보호 관찰서 직원들은 지역 가석방자들에 대한 온정 어린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 활동이 이들에게 심신을 가다듬고 수행을 통해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행사에 참석한 가석방자들은 화렌 사회복지관에 들어설 때 동수들로부터 한 사람씩 장미꽃 한 송이를 받고는 쓸쓸했던 얼굴이 금방 미소로 환해졌다. 이어서 스승님이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르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가운데 동수들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200개의 촛불을 밝혔다. 이 신성한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상영되는 동안 청중들은 조용하고 주의 깊게 시청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방편법을 배워 물 입된 상태로 함께 명상했다. 마지막으로 행사가 끝날 즈음 가석방자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동수들로부터 음식 꾸러미를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깊은 감사와 함께 스승님과 우리 단체에 대해 질문을 했다.

보호 관찰서의 시에 주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수감자와 가석방자들을 위한 많은 사랑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수행의 힘에 큰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가석방자들을 위한 활동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질서 정연하게 개최된 적은 없었습니다. 가석방자들도 매우 예의바르고 협조적

이었고요." 화렌 가석방자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 동수들은 그들이 한 번의 실수로 감옥에 갇혀 살게 되긴 했지만 이 중 다수가 천성적으로 자비롭고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스승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너그러운 포용이 이들을 생의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길로 안내해 줄 게 분명하다.



청결히 하는 습관을 기르자

양동인 사저/ 포모사 지롱 (원문 중국어)

10월 30일 지롱 환경보호국의 주최로 바도우즈의 창탄리 해변에서 열린 2004년 추계 해변 환경 미화 활동이 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공익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다년간의 참가 경험으로 이 지역 동수들은 해변 청소의 고수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형사저들이 청결히 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어지럽혀진 것을 볼 때마다 즉시 정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번은 국립 타이완 대학 병원의 한 의사가 내가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서는 농담 삼아 “당신네 동수들은 결벽증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적도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귀가했을 때 집을 잘못 찾은 줄 알았다고 한다. 그의 집을 방문했던 한 동수가 집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수들은 어디를 가든 청결히 하는 좋은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스승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청결함을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보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동수들에게 있어 해변 환경 미화는 공익 활동에 참가해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청결함이라는 좋은 품성을 계발해서 세상의 모든 곳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2004년 7월에서 10월까지 포모사 내 사랑의 활동 지출 일람표
표1과 2 합계: NT\$1,293,260 (미화 약 38,262.13달러)

표 1: 2004년 7월에서 10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달러 NT)

지 역	날 짜	활동 내역	금 액	부 록
난토우	2004. 7. 10.	태풍 민들레로 진흙 사태 피해를 입은 난토우 산간 지역의 런아이 마을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자 기증, 런아이 항공소가 대표로 받아 전달	147,980	A
미아오리	2004. 7. 11.	시후 항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1,530	B
타이난	2004. 7. 21.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7. 29.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핑둥	2004. 8. 22.	핑둥 시 런아이 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스승님의 예술 작품 전시회 및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 및 기타 활동	58,623	C
타이난	2004. 8. 26.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4. 8. 29.	타이난 현 런더 향 베이루 전시 센터에서 열린 타이난 도서전에 참가, 인류의 마음 정화, 사회 미화를 위한 스승님의 영성 서적 및 예술 작품 전시회 개최, 영성 고양 세미나, 방편법 전수	240,236	D
화롄	2004. 9. 17.	화롄 지방 법원 검찰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 방문, 중추절 선물 전달 및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	24,400	E
타이난	2004. 9. 22.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신주	2004. 9. 23.	국립 지아오통 대학에서 신주 주민들에게 영성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스승님의 예술 작품전 및 영성 고양 세미나, 방편법 안내, 채식 식품 시식회 개최	29,451	F
신주	2004. 9. 25.	신주 현 우평 향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구호 물품 전달	65,230	G
타이난	2004. 9. 30.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타이중	2004. 10. 7.	태풍 민들레와 에어리로 피해를 입은 타이중 현 허핑 향 보아이 촌 송허 마을 이재민들 방문, 마을 재건 위원회측에 컴퓨터 등 하드웨어 장비 기증	475,800	H
미아오리	2004. 10. 10.	시후 항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810	I
타이난	2004. 10. 20.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미아오리	2004. 10. 24.	미아오리 현 위안 요양원에서 열린 자선 박람회에 참가, (행사 수익금 NT\$15,780 전액을 요안 요양원에 기증)	9,000	J
타이난	2004. 10. 28.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자원 봉사)	0	
지룽	2004. 10. 30.	지룽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활동 지원으로 바도우즈 창탄리 해변 청소 활동	4,200	K
총액			NT\$1,057,260	



타이중 현 허핑 향 승허 마을 재건 위원회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
태풍 민들레와 에어리로 피해를 입은 후 재건 활동에 기부해 주신 정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립니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정하이 무상사의 도움과 관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안 요양원의 감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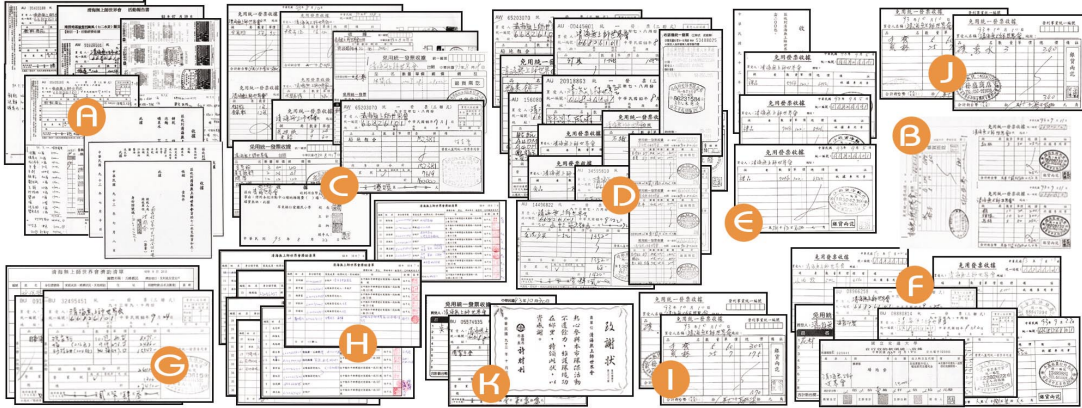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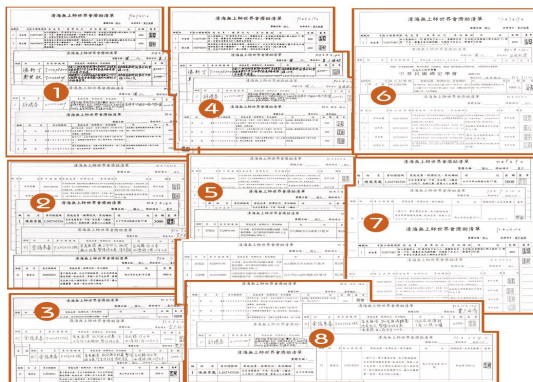


표 2: 2004년 7월에서 10월까지 포모사 내 영세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NT\$)

장소	2004년 7월		2004년 8월		2004년 9월		2004년 10월		부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지룽	1	2,000	1	2,000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4	10,000	4	10,000	4	10,000	4	10,000	2
타이중	1	3,000	1	3,000	1	3,000	1	3,000	3
난토후	7	26,000	7	26,000	7	26,000	7	26,000	4
가오슝	1	4,000	1	4,000	1	4,000	1	4,000	5
핑둥	2	6,000	2	6,000	-	-	-	-	6
타이둥	2	8,000	2	8,000	2	8,000	2	8,000	7
핑후	1	3,000	1	3,000	1	3,000	1	3,000	8
소계	19	\$62,000	19	\$62,000	17	\$56,000	17	\$56,000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포모사 24시간 인터넷 TV 방송국-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 팀)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us> (미국-다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n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http://www.godsdirectcontact.com/sb/index.html>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ejemplar>

관음 웹 사이트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전세계 연락처

아프리카

★ 양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hmail@yahoo.co.uk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siza.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vif.com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vif.com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diachadicha@hotmail.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cmpkamelkamel@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center@contactodirectocondios.org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0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 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살바도르**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sun.com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ils1095@earthlink.net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tranduongdean@yahoo.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메사추세츠 :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s. Gan Mai-Ky 1-508-791-7316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yuen@yahoo.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휴스턴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센터 1-281-955-5782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미주리 :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콜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샌안토니오			
네바다 :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unm.edu	워싱턴 :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푸에르토리코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아시아 ***		
오리건 :			★ 포모사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h.edu.tw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텍사스 :			★ 홍콩 센터 852-27495534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wu@yahoo.com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황상원	051-805-7283
★ 인도네시아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발리	센터	62-361-231-040			shc5824@hanmail.net	
		smch_bali@yahoo.com		신현창		063-254-5824
	Mr. Agus Wibawa	62-81-855-8001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wibawa001@yahoo.com		이재문		032-244-1250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smch-jkt@dnnet.net.id			chinghaidaegu@hanmail.net	
	Mr. Tai Eng Chew	62-21-6319061		김익현		053-633-3346
		cte@envirotec.co.id		한선희		053-767-5338
	Ms. Lie Ik Chin	62-21-6510715		차재현		053-856-3849
		herlina@ueii.com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qydaejeon@yahoo.co.kr	
		hai@cbn.net.id		김수동		042-254-7309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vegeone1@yahoo.co.kr	
		ketut@sinarماس.co.id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조명대		061-394-6552
		yudi_wartono@telkom.net			smgwangju@naver.com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김삼태		054-821-3043
		smch_medan@hotmail.com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 라오스			
		ahimsasb@indosat.net.id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somboon_9@hotmail.com	
		harry_l@sby.dnnet.net.id	★ 마카오		센터	853-532231
욕야카르타	Mr. Madyana Putra Augustinus	62-274-411-701			macau_center@email.com	
		t.adianingtyas@lycos.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 말레이시아		
		ya05@netvision.net.il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 일본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supreme2@tm.net.my	
		divinalv@meth.biglobe.ne.jp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klsmch@yahoo.com	
		tateyama_lg@yahoo.co.jp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klnet23@yahoo.com	
		lotus@sky.plala.or.jp	페낭	센터	604-2285853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pgsmch@pd.jaring.my	
		y-plus@f6.dion.ne.jp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한국			★ 몽골			
	출판사	031-772-9250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chinghai@unitel.co.kr			baasandamba@yahoo.com	
영등	영등 센터	054-532-5821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houmri21@yahoo.co.kr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 네팔			
		goldenseoul@yahoo.co.kr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유태인	02-795-3927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chinghaibusan@hanmail.net			ajaystha@hotmail.com	
	송호준	051-957-4552	포카라	센터	977-61-28455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iwanli@hot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gmx.at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99-12272892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센터	32-472-670272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qybelgium@yahoo.com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9321920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Nguyen Ngoc Trung	00-31-626478716
		Quan-Am@chell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4273364
	Ms. Dora Seres	36-1379-1924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osloqy@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s. Lidia Kong 34-91-5470366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weden1@tele2.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영국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런던 센터 pnl@matters19.freemove.co.uk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anet.weller7090@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l36@hotmail.com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스 Ms. Kaye Benen 61-2-6679-5774
kayebenen@dodo.com.au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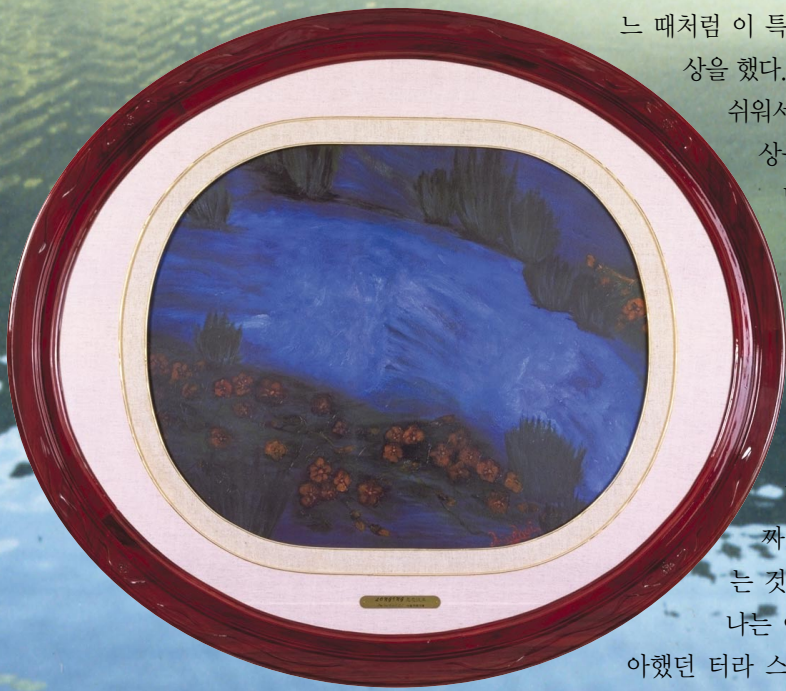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피안을 그리며 흘러가는 삶의 강물

심원(深遠) 사저/ 필리핀



기쁨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청하이데이 행사를 맞이하여 2002년 10월 25일에 있었던 고귀한 체험을 동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해에도 필리핀 동수들은 어느 때처럼 이 특별한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모여서 단체명상을 했다. 명상이 끝난 후 나는 명상홀을 떠나기가 아쉬워서 그냥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스승님의 법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법상 속의 스승님이 나를 보고 웃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흘린 듯 스승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청량하고 푸른 강물이 내 눈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스승님 법상 옆 가까운 곳에 걸려 있던 ‘피안을 그리며’로 시선을 옮기자, 그 작품 속의 강물이 정말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것이 스승님의 그림이고, 진짜 강이 아녜데도 계속해서 그 물결이 흐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과 시,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던 터라 스승님의 시와 그림을 모두 좋아했다. 내게 있어 스승님의 시와 그림들은 하나하나가 심오하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종종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가만히 보면서 감상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강렬하고 경이롭고 부드러우며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 그 작품들을 만지고 껴안고 가까에서 보고 싶어진다.

스승님이 지니셨던 것이거나 만드신 모든 것에는 스승님의 강력한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다. 우리가 집중하면 그 모든 것이 생명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스승님, 제가 근심 없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제게 끝없는 힘을 가진 무상의 법문, 관음 법문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법문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 무한한 힘을 얻게 되리란 것을 압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신 스승의 시

스승님의 시는 온유한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조용한 시냇물과 평온한 하늘,
먼 산과 고요한 숲.

저녁 무렵의 구름처럼 그리움에 잠겨
바람은 주저하며 향수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임으로부터의 소식은 찾을 수 없군요.
끝없는 수평선 혹은 깊은 대양 속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인간의 삶이란 몽롱한 꿈과 같아
많은 격랑 후에 우리는 그저 사라져 버리고 마는군요!

스승님의 시는 찬란한 광휘(光輝)로 가득하고
산과 숲은 천상의 즐거움으로 물듭니다.

토마스 하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어울락어)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중문판 즉각 깨닫는 열쇠 제9권

이 책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칭하이 무상사가 모국어인 어울락어로 말 씀하신 강연집으로서 종교와 수행에 관련된 많은 주제들에 대한 훌륭한 내 용이 담겨 있다. 스승님은 바다같이 넓은 지혜로써 당신의 동포들이 수행의 길로 들어서도록 격려하신다. 장을 넘길수록 독자들은 높은 세계로 나아가는 깨달 음의 여행 속으로 깊이 인도된다. 스승님은 이 강연들 속에서 중국어나 영어로 된 강연에선 볼 수 없었던 명쾌한 비유와 생생한 설명을 사용하셨다. 스승님의 말씀은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도 심오한 철학적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깨달음이 담긴 이 영혼의 양식을 꼼꼼이 읽어 가는 동안 천상의 감로수를 마시는 듯한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184 <중국어 + 23개 국어 자막>

미륵불과 여섯 아이들/ 이 세계의 진상

1991. 8. 4./ 9. 1. 포모사 시후 센터 단체명상

내용 요약: 이 DVD에서 스승님은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해 주셨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 '건륭 황제의 강남 유람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미륵불 불화에 서는 보통 여섯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것은 내적 경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래(如來)'란 무슨 뜻인가? 관음법문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래의 등급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수행의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약해지고 회복하기 어려워지며 때로는 새 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스승님은 이 강연에서 입문 후 우리의 이상을 견지하여 계속 고양 시키라고 온 마음을 다해 격려하신다.



356 <영어 + 26개 국어 자막>

신이 우리를 통해 봉사하도록 하라

1993. 4. 20. 스위스 제네바 UN 강연

내용 요약: 고대로부터 위대한 왕들은 어떻게 신의 뜻을 깨달아 나라를 통치했는가? 과거 수행자들은 깨달은 스승에 게 오랫동안 시험을 거친 후에야 입문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오늘날 사람들은 깨달음을 즉각 얻을 수 있는가? 위대한 사람에게 알맞은 생활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스승님은 위의 내용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한편 유엔에서 일하는 동수 들에게 지상에서 '신의 길'을 걷는 용감한 선구자가 되라고 격려하신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E720 <영어>

출가는 금욕에서부터 시작된다

2001. 6. 4.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CD-E724 <영어>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

2001. 6. 12.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CD-ES105 <영어 + 스페인어 통역>

매일 신과 만나는 방법

1989. 11. 22. 코스타리카 강연